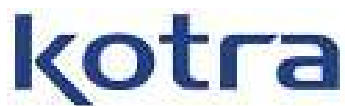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네덜란드

정보수정일자: 2009. 12. 17

작성처: 암스텔담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8
주요 산업 동향 /1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4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9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30
대한수입규제동향 /32
관세제도 /33
주요인증제도 /34
지적재산권 /38
통관운송 /4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1
- 외국기업 투자동향 /44
- 우리기업 투자동향 /4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9
- 진출형태별 절차 /51
- 투자입지여건 /57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0
- 조세제도 /6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7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71
- 물가정보 /73
- 바이어발굴 /7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75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80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0
- 이주정착 가이드 /82
- 출장가이드 /90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07
- 유관기관 웹사이트 /10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공식국명	Koninkrijk der Nederland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 도	암스테르담(Amsterdam) ※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상업수도, 헤이그(Den Haag)는 행정수도
면 적	41,526km ² (남한면적의 약 40%) .경작지 57.9%, 삼림 7.6%, 간척지 7.5%, 내수면 17.4% 보존지구 3.5%, 기타 6.1%
인 구	16,528,699명(2009.7)
주요도시	.Amsterdam (공동수도) 743천명, Rotterdam 589천명, Tilburg 200천명 .The Hague (공동수도) 476천명, Utrecht 281천명, Eindhoven 209 천명
언 어	화란어 (영어 통용)
종 교	카톨릭 (27%), 신교 (16.6%), 무슬림(5.7%), 기타 (2.3%), 무교 (48.4%)
GDP	GDP 8,759억 달러 (2008년 추정치, 서비스 73.6%, 농업 2%, 제조업 24.4%)
1인당 GDP	약 40,867달러(2008년 추정치, 구매력평가지수(PPP)기준)
건 국 일	1558년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여왕)
입 법 부	양원제(상원 : 75석, 하원 : 150석)
기 후	서안해양성 기후 ※ 여름과 겨울 평균 기온이 각각 16.5도C, 2.5도C로 연중 온난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편임.
시 차	3월말 ~ 10월말 : -7시간 (서머타임), 11월초 ~ 3월초 : -8시간

나. 경제 지표

기초 지표	○ GDP 7,855 억 달러 (2007 년) ○ 2009 년 성장률(예상치): -4.1% ○ 구성: 농업 2.0%, 제조업 24.4%, 서비스 73.6% ○ 1 인당 GDP: 약 40,867 달러(2008 년 추정치)
인구	16,528,699 명(2009.7)
실질 경제 성장률	2008(2.0%, 2007(3.6%), 2006(3.4%), 2005(2.0%), 2004(2.2%)
노동력	738.9만 명(2009년 2분기 기준) 상업서비스 40%, 비상업 서비스 32%, 산업 11%, 농업 3%, 기타 3%
실 업 률	2009.6(4.9%), 2008(3.9%), 2007(4.6%), 2006(5.5%), 2005(6.5%)
소비자 물가 지수	2009.8(0.3%), 2008(2.5%), 2007(1.6%), 2006(1.2%), 2005(1.7%)
화폐 단위	Euro(2002년 1월부터 변경)
환 율	1 EUR = 1,775.85원 (2009.9.15)/ 1 EUR = 1.45904 USD (2009.9.15)
외 채	총 GDP의 약 58.1% (2008년 말기준 추정치)
이자율	2009.8월(3.9%), 2008(3.9%), 2007(4.3%) (국채, Average)
수출입	○ 2009 년 예상 (수출 3805 억 달러, 수입 3429 억 달러) ○ 2008 년 (수출 5321 억 달러, 수입 4758 억 달러) ○ 2007 년 (수출 4610 억 달러, 수입 4062 억 달러) ○ 2006 년 (수출 3907 억 달러, 수입 3422 억 달러) ○ 2005 년 (수출 3453 억 달러, 수입 2978 억 달러)

주: 2009년 9월 기준

다. 산업 및 교역

주요 교역 대상 및 품목	○ 주요 교역 대상 - 수출 : 독일(28.2%), 벨기에(16.1%), 영국(10.3%) - 수입 : 독일(19.9%), 벨기에(11.0), 중국(10.9%), 미국(9.1%) ○ 주요 교역 품목 - 수입: 원유, 자동 자료 처리기기, 사무용 기기 및 부품, 승용차, 의약품 - 수출: 자동 자료 처리기기, 석유, 사무용기기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 구조	○ 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 의 73.6%를 점유(제조업 비중은 24.4% 수준) ○ ICT, 바이오 산업을 주요 지식 육성 산업으로 판단 ○ 화학산업 등 2000 년 이후 평균 10% 성장 주요 산업으로의 위치
투자	○ 유럽물류센터로서의 입지,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단지 및 제 3 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자주 이용 ○ 임금의 상승으로 비 핵심 부문 이전 촉진, 신 정부 우려 ○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의 투자매력 여전

주: 2009년 9월 기준

라. 한국과의 관계

1) 체결 협정

- 1966. 4. 29: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각서 교환(1966.4.29 발표)
- 1970. 4. 28: 사증면제협정 서명(1970.6.1 발효)
- 1970. 6. 24: 항공협정 서명(1970.12.30 발효)
- 1974. 10.16: 투자보장협정 서명(1975.6.1 발효)
- 1978. 10.25: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1981.4.27 발효)
- 1979. 2. 28: 전대차관 협정 서명(1981.6.24 발효)
- 1982. 12. 1: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1983.8.1 발효)
- 1995. 2. 3: 해운협정 서명(1995.12.1 발효)
- 2002. 7. 3: 사회보장협정 서명(2002.10.1 발효)
- 2007. 2.14: 세관협력협정 서명

2) 무역 관계

- 대한 교역
 - 한국의 수출: 2008 년 6,405 백만 달러(전년 대비 42.7% 증가)
 - 주요 수출품: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철강판, 고무제품, 공기조절 냉·난방기,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
 - 2009.7 월까지 총 수출액 391,876,601 달러(전년 대비 3.1% 증가)
 - 한국의 수입: 2008 년 3,239 백만 달러(전년 동기비 12.5% 감소)
 - 주요 수입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반도체 제조장비, 농약 및 의약품, 육류, 컴퓨터, 기호식품, 축산가공품 등
 - 2009.6 월까지 총 수입액 173,588,730 달러(전년 대비 54.0% 감소)

3) 투자 관계

- 네덜란드의 대한 투자: 1,099 건, 173 억 900 만 달러(1962~2009 년 6 월 누계, 신고 기준)
-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319 건, 49 억 5296 만 달러(1968~2009 년 6 월 누계, 신고 기준)

4) 교 민: 약 1,200명(상사 주재원 포함)

- 한인회
 - 주소: Leksmondhof 163, 1108 DC,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화 번호: 31-(0)10-415-6342 (곽찬순)

2. 정치 사회 동향

가. 네덜란드 정치 제도

1) 정부 형태

- 국체: 입헌군주국
-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 기본적 정부 기구: 국왕, 내각, 의회, 국왕 최고자문위원회 및 사법부

2) 국왕

- 국가 원수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
-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나 국사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

3) 내각

- 국정 최고 의결 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이다.
-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행정부는 13 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4) 의회

-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제이다.
-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수정권을 보유,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하원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 보통 선거에 의거 선출된 임기 4 년의 150 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4 년의 75 명의 간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네덜란드 주요 정치사

- 네덜란드의 정치사는 16 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에 저항하는 여러 지역 세력들을 모체로 탄생했다. 1579 년 칼뱅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북부 7 개 주가 최초로 독립을 선언 했다. (현 네덜란드 지역)
- 반면 가톨릭이 대세를 이뤘던 남쪽 지역(현재의 벨기에)은 여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에 귀속된다. 네덜란드의 신생 독립주 연합은 17 세기 세계적인 주요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네덜란드 역사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인도네시아, 남인도, 스리랑카(당시 쉘론), 서인도 제도를 식민지화했다.

- 18 세기는 독립주 협의 후퇴기로 1814 년 나폴레옹에 패한 후 오렌지 왕가에 복위했다.
- 새로운 네덜란드 왕국은 본래의 북부주(네덜란드)와 남부주(벨지움)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으나 1831 년 벨지움 혁명으로 인해 벨지움 왕국으로 분리된다.
- 전 유럽을 휩쓴 혁명의 열기가 1848 년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미쳐 네덜란드는 입헌 군주국이 된다. 19 세기 후반부터는 정당 형태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 평민에 대한 참정권이 1917 년에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투표권은 1919 년부터 허용된다. 네덜란드의 정치는 신조주의와 이상주의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정치를 주도한 세력도 로마 가톨릭과 신교 칼뱅주의자였고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연정에 합세한다.
-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학교, 상업조합들, 스포츠 클럽 등등)은 모두 이 네 가지 파벌에 따라 조직됐다.
- 네덜란드는 1 차 대전 때 성공적으로 중립 노선을 지킬 수 있었지만 2 차 대전 때는 독일의 침공으로 종전 시까지 지배를 받게 된다. 당시 여왕인 빌헬미나(Wilhelmina)와 정부는 추방 당했으며 유대인 주민들은 거의 말살됐다. (ex. 안네 프랑크)
- 종전 후 전쟁의 참화에서 네덜란드 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마셜 플랜으로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이었으며, 노동 인력의 완전 고용과 천연가스의 발견도 네덜란드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 네덜란드는 전후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1949 년 네덜란드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독립을 부여했다.
- 번영과 종교적 편향이 없는 사회 시스템은 1960 년대부터 네덜란드 정치의 근간을 이루던 신조주의를 퇴색하게 만들었으며 신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중도우파인 VVD 당과 다른 여러 신흥 정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 1973 년 PvdA 가 이끄는 정부는 공공 부문과 사회보장 부문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으나 1 차 오일쇼크와 지나친 천연가스 생산의존 이후에 닥친 최악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와 실업을 급증(Dutch disease)이라는 실패를 경험한다.
- 신조주의 정당들은 1977 년 이어진 선거에서 CDA 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VVD 와 연정을 구성했다. 1981~1994 년까지는 CDA 가 정치를 이끌게 된다.
- 1994 년 선거에서 CDA 는 독점적 지위 상실. 이로 인해 비종교 정당과의 연정을 만들게 되었으며 일명 좌-중도-우파 또는 퍼플(purple) 연정이라는 이름 하에 PvdA, D66, VVD 가 참여를 했다. 연정은 PvdA 당수인 Wim Kok 가 이끌. 이 3 당 연정 체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1998 년 재집권에 성공했다.

- 8 년간 집권에 실패한 CDA 는 2001 년 Balkenende 을 새로운 당수로 임명하고 2002 년 선거를 통해 중도우파인 VVD, 중도좌파정당인 D66 와의 연정을 창출하는데 성공한다.
- 이후 2006 년 소수집권정당체제를 거쳐 2007 년 선거를 통해 PvdA 와의 연정을 이끌고 있으며, 차기 선거는 2011 년 5 월로 예정되어 있다.

다. 네덜란드 주요 정당 소개

1) 기독교민주당(CDA – Christian Democratic Appeal)

- 1977 년에 로마 가톨릭과 신교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결성됐다. CDA 는 전후 네덜란드 정치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01 년 9 월 지도부 위기 이후 Mr Balkenende 가 당수로 추대되었으며 2002 년 치러졌던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총리로 임명됐다.
- 그의 첫 번째 정부가 2002 년 10 월 붕괴되었음에도 Mr. Balkenende 는 그의 네 번째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VVD 중도우파연합을 구성하였고 세가 다소 약한 좌파 자유주의 정당인 D66 과도 2002-06 까지 연정을 구성했다.
- 2007 년 초부터는 중도우파연합을 PvdA 및 Christian Union 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CDA 는 네덜란드 정치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서킷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 노동당(PvdA-Labour Party)

-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중도 실용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1946 년 창당 되었으며 2 차 대전 이전의 사회민주노동당(SDAP)의 후신으로 Mr. Kok 의 지도 아래 1980~90 년대 중앙 정치 무대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 효율성과 관련된 당의 노선 이 대중의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은 2002 년까지 총 세 개의 정부를 주도했 다. 2002 년부터 Wouter Bos 의 주도 하에 정당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3)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VVD-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 VVD 는 1948 년 중상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자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공 공 부문 지출에 반대 입장과 유럽 정치 통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 한 정당이다.
- VVD 는 1994~2002 년 동안 주도했던 정부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2002 년 5 월 총선에 실패했으며, 새롭게 결성된 신흥정당인 List Pim Fortuyn(LPF)에 패배했다.
- 이 신흥 정당은 이민과 공공 부문 지출에 있어 더욱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VVD 정부시절 이민성 장관을 지낸 Rita Verdonk 가 이끄는 Proud of the Netherlands (ToN)로부터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 사회당(SP-the Socialist Party)

- 1972 년 소수 급진 좌파 정당으로 탄생한 사회당은 2002 년까지 남아있었으며 당시까지는 네덜란드 4 대 정당 규모로 성장. Jan Marijnissen 이 주도했던 사회당은 LPF 의 당수인 Pim Fortuyn 이 암살된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2005 년 EU 헌법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 그리고 이 반대운동에서 Mr. Marijnissen 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2006 년 총선에서는 PvdA 를 거의 압도하는 수준까지 이른다. 당수인 Mr. Marijnissen 는 2008 년 6 월 총선 이후 당수직을 사임했다.

이 밖에 자유당(Party for Freedom), 기독교 연합(Christian Union), 민주66(Democrats 66), ToN(Proud of the Netherlands) 등이 있다.

라.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

- Prime minister: Jan Peter Balkenende(CDA)
- Deputy prime minister & finance minister: Wouter Bos(PvdA)
- Deputy prime minister & youth & family minister: Andre Rouvoet(CU)
- Key ministers
- Agriculture: Gerda Verburg(CDA)
- Defence: Eimert van Middelkoop(CU)
- Economic affairs: Maria van der Hoeven(CDA)
- Education, culture & science: Ronald Plasterk(PvdA)
- Foreign affairs: Maxime Verhagen(CDA)
- Health, welfare & sport: Abraham Klink
- Home affairs & kingdom relations: Guusje ter Horst(PvdA)
- Housing & environment: Jacqueline Cramer(PvdA)
- Justice: Ernst Hirsch Ballin(CDA)
- Living, urban areas & integration: Ella Vogelaar(PvdA)
- Social affairs & employment: Piet Hein Donner(CDA)
- Transport & public works: Camiel Eurlings(CDA)
- Central bank governor : Arnout Wellink

마. 최근 네덜란드 정치 동향(2009.9월 기준)

- 현 연정체제의 의회 내에 내부에서 일련의 이슈에 따른 입장 차로 인해 연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현 정부의 지지에 대한 정당간의 이견차이로, 국회의 별도 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쟁점화하려는 PvdA 와 정치권내에서 해결하려는 CDA 가 맞서고 있다.
- 현 연정은 탄생 초기부터 다소 뼈거덕거리는 감이 있었으나 현 총리인 Jan Peter Balkenende 과 재정부 장관겸 노동당 당수인 Wouter Bos 가 연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당장의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여 2011 년 5 월에 예정된 선거이전에 조기 선거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특히 2009 년 하반기 여론조사에서 연정을 구성하는 두 정당이 모두 차기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에 반해 극우파인 자유당(PVV)은 상반기 유럽의회 선거 및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면서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EU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나 터키를 포함한 EU 확장, EU 헌법, 예산등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는 전임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네덜란드 국회는 2008 년 7 월 리스본 조약을 승인하였으며, 나토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에 1,800 명을 파견하는 등 (2010 년 중순까지 지원예정) 국제이슈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영사업무

- 2007 년 6 월 1 일부로 기존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를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국민에 대해 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덜란드 입국수속이 수월해졌다.
- 그러나 3 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복잡한 절차의 거주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상존하고 있다. 국내에는 EU 의 무비자 입국기간이 3 개월이므로 3 개월 체류 후 비 EU 권 국가로 1~2 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관철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 네덜란드 이민청에 따르면 한국-EU 의 공동조약에 따르면 총 6 개월의 기간동안 최대 3 개월 동안을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 개월을 체류 시 그 다음 3 개월은 거주비자를 획득하지 않는 한 EU 내에 머무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한국-네덜란드 양자조약에 따르면 비 EU 권 국가로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3 개월 무비자 입국일자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네덜란드 이민청에서는 한국-EU 의 공동조약이 한국-네덜란드의 양자조약보다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을 2009 년 5 월 최종적으로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6 개월 내 3 개월 체류”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나. 녹색성장 / 4대강 개발

-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녹색성장에 관심을 기울여 Amersfoort 시의 Nieuwland, Heerhugowaard 시의 “City of Sun”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다
- 한국도 2009 년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래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 이중에서도 2009 년 하반기 들어서는 “Green Fund Schem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성장을 금융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 한편 네덜란드는 국토가 해수면이 낮은 만큼 치수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고, 내륙수로가 발달되어 있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 대강 개선사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인운하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DHV 사는 최초 경부 대운하 컨설팅에도 참가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4 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 한인 입양아

- 네덜란드에는 2009 년 현재 약 4,000 여명의 한인입양아가 입양되어 최근 중국이 앞지르기 전까지 네덜란드 내 최대의 입양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 유럽 각국에는 상당수의 한인입양아가 존재하며, 그 수는 국가별로 프랑스 9,000 명, 네덜란드 4,000 명, 덴마크 9,000 명, 벨기에 2,000 명, 스웨덴 10,000 명 정도로 추산된다.
- 이들은 Arirang 이라는 자체 조직을 만들어 매달 정기모임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한국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의 입양아 모임과 함께 IKAA(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을 구성하고 있다.
- Arirang 은 덴마크의 Korea Klubben 과 함께 유럽 내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조직으로, 이 외에도 Adopted Koreans Association(스웨덴), Racines Coréennes(프랑스),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미국 워싱턴), AK Connection(미국 미네소타), Also-Known-As, Inc.(미국 뉴욕) 등이 있다.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는 무료한국어강좌 개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Arirang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이며, KOTRA 또한 Arirang 회원이 현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네덜란드 정부 경제 목표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 행정 장애/규제 극복, 재정 건실화, 노동 경쟁력 확보 등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1) 경쟁적인 경제구조 건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쟁적인 경제 구조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적 경제 구조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국내 산업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2월에는 네덜란드 우편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 행정 장애/규제 극복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 및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장애(red tape)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행정 장애를 5년 내 2007년 대비 1/4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재정 건실화

1980년대 대규모 항공 기업인 Fokker사의 도산 등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후퇴를 경험했던 네덜란드는 건실한 국가 재정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모토 아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목표 중 하나를 EMU 재정 균형으로 맞추어 추진을 했으나,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 지출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공공 부문의 지출이 5%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4) 노동 경쟁력 확보 추진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자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비효율적 노동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도 높은 노동 임금과 짧은 노동 시간이 네덜란드의 중장기적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덜란드의 평균 노동 시간은 1,340시간으로 이는 유럽연합 평균 1,615시간, 미국 평균 1,815시간보다 낮은 수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 시간의 확대를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청(CPB)은 5%의 노동 증가는 국내 총생산의 3~5%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확대 추진코자 했으나 다수 국민 여론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추진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최신 네덜란드 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부재정수지(2009~2010)

2007년 정부 재정수지는 전체 GDP의 0.4%에 해당하는 소폭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2008년도 정부 예산에는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를 보충하기 위한 큰 폭의 세수익이 포함되어 약 1%의 재정흑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당초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0%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중반 3%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구매력 보존을 위해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2009년에 들어서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당초 예상치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ABN Amro, Fortis 은행이 국유화 되었고, ING를 비롯한 시중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문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2011년까지 60억 유로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 고용안정기금 마련, 기업유동성 확대지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의 재정수지는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며, 적자폭도 GDP의 4% 정도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자기조는 당분간 지속되어 2010년에도 4~5%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 통화정책(2009-2010)

유럽중앙은행(ECB)은 2007년 유럽 은행간 금리(Euribo 1년)를 3.44%에서 4.45%로 인상한 이후 2008년에도 고유가, 식량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우려하여 7월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경기 하락과 9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부터 7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2009년 5월 1일에는 1%까지 금리를 인하했고, 2008년 중반까지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긴 했으나 (2009년 7월 기준 0.7%) ECB는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2011년까지는 1~2%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2009, 2010년에 걸쳐 실질임금상승율이 인플레이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긴 하나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8년 이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600억 유로의 채권구입을 통해 자금을 공급해왔던 ECB는 2010년에도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2010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이자율상승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네덜란드 경제성장 전망(2008-2009)

네덜란드 경제는 2008년 상반기 3.6%의 성장세를 보여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2.0%의 성장에 그쳤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0.6%의 성장을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09년에 -4.1%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0.4%의 소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투자부분의 위축이 두드러져 2008년 4.9%성장에서 2009년 -10.2%의 감소를 보여 마이너스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신용경색, 기업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등으로 인해 2010년에도 투자는 -0.8%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2008년 3.9%까지 낮아졌던 실업률이 대폭 높아져 2009년에 5.0%, 2010년에 6.2%까지 늘어나 향후 수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어두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Jan Peter Balkenende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가 '깊은 불황'국면에 진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4) 환율 전망(2008~2009)

유로화 대비 미달러화 환율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자율을 낮춘 후부터 2006년과 2007년 사이 주목할 만한 인상폭을 보이다 2008년 하반기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들어 다시 1유로당 1.4달러를 넘어섰다.

2009년 9월 15일 기준으로 1유로당 1.45904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18개월간 1유로당 1.4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달러화 약세의 가능성이 줄어든 점이 이러한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네덜란드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망치)
명목 GDP(십억 유로)	513	540	569	596	576
실질 GDP 성장률(%)	2.0	3.4	3.6	2.0	-4.1
1인당 GDP (달러, PPP)	35,052	37,263	39,328	40,867	39,161
GDP대비 정부재정흑자	-0.3	0.5	0.4	1.0	-4.0
인플레이션(%)	1.7	1.2	1.6	2.5	0.7
실업률(%)	6.5	5.5	4.6	3.9	5.0
교역수지(십억 달러)	47.6	48.5	54.8	56.3	37.6
- 수출	345.3	390.7	461.0	532.1	380.5
- 수입	297.8	342.2	406.2	475.8	342.9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9, September)

5) 금융위기와 관련 최근 경제동향

□ 2009년 네덜란드 경제 -4.1% 성장 전망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EIU가 발간한 Country Report에 따르면 2009년 네덜란드 경제는 -4.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에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융위기의 여파가 점차 강해지면서 각종 경제수치가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성장을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Jan Peter Balkenende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가 '깊은 불황'국면에 진입했다고 언급하였다.

2010년에는 상황이 약간 호전되어 0.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6.2%까지 이르는 등 가장 고통스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3~4%대를 기록했으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구분	2007	2008	2009(예상)	2010(예상)
경제성장률(%)	3.6	2.0	-4.1	0.4
실업률(%)	4.6	3.9	5.0	6.2

자료: EIU Country Report

□ 금융 위기와 연계된 최근 현상들

- 네덜란드 수출입의 급감
 - 2008 년 GDP 의 7.1%에 달했던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0 년에는 GDP 의 4%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8 년 대비 월간 수출이 15~20% 가량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국내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
- 소비의 둔화
 - 소비자 신뢰지수의 저하와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09 년에는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자동차구매의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고 호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출도 소폭 감소함. 정부지출은 2008 년 4 분기에 1.2%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공공운영 부분의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생산 감소
 - 수출감소로 인해 제조업의 타격이 컸으며 2008 년 4 분기에 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6.5% 감소함. 또한 운송, 호텔, 요식업 부문의 생산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부문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지속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서비스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투자지출 감소
 -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섹터로, 2009 년에 -10.2%의 대폭감소가 예상됨. 또한 2010 년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0.8% 감소가 예상되어 경기회복을 견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주거용 자산에 대한 투자는 주택거래의 위축으로 소폭 감소했고 기계류, 토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소폭 감소함. 반면, 상업용 건물, 컴퓨터 등 전산화를 위한 투자는 증가함.

□ 2009년 2분기 경제지표 요약

- 2 분기 네덜란드 경제 -4.9% 성장
 - 네덜란드 통계청이 집계한 2 분기 잠정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 분기의 -2.7%보다 악화된 수치로, 수출과 투자가 10% 이상 대폭 하락한 데 따른 것임. 민간소비가 2.6% 감소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전년대비 11% 감소하기는 했으나 1 분기 대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특히 민간투자가 전년대비 -15.7% 급격히 감소해(1 분기 -3% 감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1.8% 증가분을 훨씬 초과했다.
-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
 - 6,7 월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해 유로존 평균인 0.1%에 근접한 0.2%의 수치를 보임
 - 이는 2 년마다 있는 에너지가격조절(Energy cost adjustment)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수출 급감

- 네덜란드의 2 분기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 수입은 10.1% 감소로 순수출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고수준의 감소로 인해 GDP 감소폭은 순수출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집계됨.

○ 민간소비 감소

- 1 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함. 민간소비의 감소는 4 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임. 소비자들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은 신차 구입 감소임. 또한 소비자들은 가정용 가구, 전자제품, 의류 등에 대한 소비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관련 소비의 경우 호텔 및 음식점, 항공기 이용이 급격히 줄었고 식품, 음료, 담배 소비는 감소함. 반면 정부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사회복지분야, 공공부문 운영 관련 지출이 증가함.

○ 투자 감소

- 민간투자는 2 분기에 15.7% 감소함. 기계분야, 상업용 차량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컴퓨터 구입도 급감. 특히 주택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고 상업용 빌딩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시사점

- 2009 년 들어 네덜란드의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08 년 4 분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됐지만 그 동안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9 년 경제지표는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특히 투자부문의 침체가 심각한데, 2009, 2010 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경기회복을 위한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발빠른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네덜란드의 주요산업인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네덜란드 산업 동향 개요

네덜란드는 유통, 도소매 및 운송 등의 서비스 산업이 GDP 생산의 50%, 고용에서 72%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 입해 재수출하는 가공/중계무역이 발달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비롯 한 외국 기업과의 합병을 통한 기업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선도 산업 분야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하여 대 변되고 있는데 SHELL, AKZO NOBEL 그리고 DSM 등이 화학 산업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유니레버는 음식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가전제품 회사인 필립스 또한 네덜란드 회사이며 또한 세계적인 유통 기업인 A-Hold 역시 네덜란드 기업이다. 이러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는 소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기업 중 76%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경제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축적된 기술 인프라가 적용되는 산업들이다. 필립스의 경우는 전체 직원의 15%가 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사들과 연구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생명 과학, 정보산업, 그리고 소재 산업 및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농업 공황의 일대 시련기를 거쳐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날 네덜란드의 대표 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업, 축산, 낙농업의 경우 네덜란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 경지 면적이나 집약 농업이 행해진 관계로 감자 등의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 1두당 우유 생산량, 달걀, 연유, 치즈 등의 수출량도 세계 최고이다. 농림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약 4%, 노동력의 약 3.8%가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 인구 중 약 25% 정도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의 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이 화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제화된 기업 문화 또한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AKZONOBEL, PHILIPS, SHELL, HEINEKEN과 같은 회사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국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국외에 많은 생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외국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20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요 산업 동향

1) 자동차 부품 산업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시장은 약 40억 유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타이어가 21%로 전체 부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액세서리 12%, 차체부품 및 액세서리 10%, 기어박스 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별 비중

Tyres	21%
Accessories	12%
Body Parts and accessories	10%
Gear boxes	5%
Parts for other lifting, handling, and loading machinery	5%
Other parts for mobile equipment	5%
Others	36%

자료: CBI

EU 자동차 부품시장 중 애프터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OEM 마켓은 약 80%에 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 생산 설비가 거의 전무하여 애프터 마켓의 비중의 타 EU 국가에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네덜란드 차량 보유 대수 및 신차 등록 대수

(단위: 천 대)

연도	판매 대수
2003	488
2004	483
2005	465
2006	484
2007	504

□ 차량 내구 연한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네덜란드의 신차 등록대수는 199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소비자들 이 경기 침체로 인해 차량 교체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된 요인은 차량 의 내구연한 증가에 있다.

2002년 기준 네덜란드 차량의 평균 수명은 6.5년이었으나, 신차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 2007년 말에는 약 7년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차량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유지 보수를 위한 A/S 부품 수요가 OEM 부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Rai Autovak 등 자동차 관련 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애프터 마켓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Distribution Channel

네덜란드의 신차 판매 시스템은 네덜란드 딜러협회(Netherlands Dealer Association/BOVAG-NDA) 관할 하의 3,300여 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브랜드별로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여 영업 중이며, 이 같은 프랜차이즈 딜러 시스템에 가입된 딜러들은 대부분 10명 내외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신차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이들 대부분은 판매 차량에 대한 보수 유지 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딜러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수천 개의 종업원 5명 이하의 Independent garages도 차량 판매 및 보수 유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차량 메이커에 구속되지 않고 많은 종류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나 주로 중고 차량이나 노후 차량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Independent garage들이 A/S용 부품의 주요 수요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중소 기업의 직수출 물량도 대부분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통 채널들을 통해 수출할 수 있으나, 실제 딜러십의 장벽 이나 수입 물량이 너무 작아서 직수출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Independent garages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입 및 도매상을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는 최근 2년간 전체 도매상의 14%에 달하는 200개 사가 다른 업체에 합병되는 등 큰 폭의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 도매업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상의 수입 규모, 타겟 시장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유럽 물류 기지 구축

OEM 부품 시장의 경우, 애프터 마켓과는 달리 물류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just in time' 배송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즉각 배송 요구는 국내 부품업체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과 유럽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배송 경쟁의 틈새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에 물류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류기지의 입지로서는 로테르담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기타 안트워프, 함부르크 등이 선 호된다. 로테르담 등지에 물류 기지를 운영할 경우, 1~3일 내에 유럽 주요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과의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는 배송 시간 단축 등 서비스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화학산업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키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화학 산업은 시장 규모 340억 유로, 고용의 10%, 생산의 15%, 수출의 25%, R&D 투자의 30%에 달하는 최대 산업 분야 하나로서 2005년 기준 네덜란드 화학 산업의 이익률은 약 9%대로 산업 평균 이익률 6.3%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네덜란드 화학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네덜란드 화학 산업 발전 모델을 ‘환경 친화적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대명제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 내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 네덜란드 산업 분야 중 화학산업이 가장 혁신적

네덜란드 조사전문기관인 EIM(Research Bureau EIM)은 58개 분야의 네덜란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화학산업 부문으로 10점 만점에 8.21점을 획득했으며 ICT 분야가 8.09점, 기계산업이 7.79점 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축산 분야 및 소매 판매업 분야가 각각 5.10점과 4.68점을 획득하여 네덜란드 중소 기업 분야 중 가장 비혁신적인 산업 분야인 것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EI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화학 산업 분야 중 특히 페인트, 접착제, 향수, 고무 밴드 등이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상기 분야들이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저임금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미 사양화 되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업들의 전략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 지향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 시스템과 서비스 도입, 친환경적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 기업들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종사 기업들이 매출 규모의 80% 이상을 수출에 집중함으로써 내수 산업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으로 들고 있다.

□ 환경친화적 민-관 협력 프로그램 'The Responsible Care Program'

1993년 네덜란드 정부 및 화학산업 관련 업계는 환경 문제가 2000년대에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을 감지하여 정부와 기업군과의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화학산업 발전 프로그램인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개발하게 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중장기적인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환경친화'에 있다는 공동 인식에 기초하여 화학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 4년마다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정책 계획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매년 말 수행 결과를 보고, 평가받음으로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he Responsible Care Program'을 약 10년간 운영한 결과 네덜란드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가스(SO₂), 산화질소(NO_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₃) 농도가 약 50% 이상 감소되어 2010년까지 목표한 달성 가능 수치의 90%까지 근접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의 구조 조정 노력도 경쟁력 확보의 기반

화학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의 수행과 더불어 기업 이익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구조 조정 노력 및 혁신적인 경영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네덜란드 화학 산업 관련 기업들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평균 30%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저비용, 최대 효용의 가치를 노사간 이견 없는 타협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생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포트폴리오 경영 방식 채택 등 혁신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었다.

□ 고객 마진 보장으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화학 산업 관련 기업들은 철저한 고객 관리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기울였다.

우선 고객 관리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바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비용을 바이어들의 마진 확대에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또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소품종, 특정 품목의 오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종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및 관련기술의 교환 등 전반적인 네덜란드 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네덜란드 화학산업 성장 산업으로 확고한 위치 굳힐 듯

네덜란드 화학 산업은 불황기 속에서부터 운영되어 온 환경친화적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2008년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더더욱 빛을 발휘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고객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기업들의 자구적인 발전 방안 등이 2007년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네덜란드 화학산업은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 며 네덜란드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력 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3) 네덜란드 조선 산업

□ “Dutch LeaderSHIP 2015”

네덜란드는 자연적으로 국토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전 국민의 60%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국가다. 이런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네덜란드에 제공하고 있다.

제방의 개발, 인공섬, 항구들, 해상물류, 어업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이며 이와 관련된 항만운영업체, 해상물류업체, 해군, 수산업, 조선산업, 조선기자재 및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발달했고 매년 20 만 명 고용과 120 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산업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로 연간 5 만 명 고용을 창출하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선박들을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조선업은 조선업체와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협업 기관으로는 MARIN, Delft 공과대학, TNO(국책기술 연구기관), 해군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조선산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다. 네덜란드 국내 시장만 해도 국제적 해수면 상승과 거주 지역 부족으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만도 수많은 준설 작업(dredging operations)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내에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는 해수로를 이용 한 물류 수송도 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자동차로 인한 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점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 레저의 발달과 대중적인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요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수산업 또한 북해연안을 중심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fish farms)으로의 산업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관련 선박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견된다. 덧붙여 네덜란드 해군도 소규모 무력 분쟁과 해안 방어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특수 군용 선박에 대한 틈새 시장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조선산업은 충분한 고급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형 물량 수주 면에서는 한국, 중국 등 신흥조선강국에 밀릴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위치는 당분간 확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선박종별 건조량(2008)

Type	Number	GT	CGT
Bulk/Prod/chem. tankers	130	551,074	744,701
Container ships	12	56,172	69,047
Dredging vessels	68	343,607	531,608
Ferries	–	–	–
Passenger ships	141	158,060	359,842
Fishing vessels	17	3,522	29,248
Other non-cargo vessels	1	150	842
Total	369	1,112,585	1,735,288
–수출	290	788,187	1,297,435

자료: VNSI 2008 연간보고서

네덜란드 선박종별 수주량(2006)

Type	Number	GT	CGT
Bulk/Prod/chem. tankers	62	252,779	346,988
Container ships	6	15,466	23,625
Dredging vessels	53	171,114	298,963
Ferries	–	–	–
Passenger ships	69	52,198	144,000
Fishing vessels	13	3,007	24,033
Other non-cargo vessels	1	150	842
Total	204	494,714	838,451
–수출	178	436,142	766,356

자료: VNSI 2008 연간보고서

네덜란드 최종 선박 인도량(2008)

Type	Number	GT	CGT
Bulk/Prod/chem. Tankers	75	353,388	474,270
Dredging vessels	26	194,431	201,500
Container ships	58	156,687	297,621
Ferries	–	–	–
Passenger ships	202	226,012	548,906
Fishing vessels	17	8,220	45,518
Other non-cargo vessels	–	–	–
Total	378	938,738	1,567,815
	315	790,349	1,307,000

자료: VNSI 2008 연간보고서

유럽국별 선박 건조량(2008)

국가	척수	GT	CGT	%
		단위: 1000	단위: 1000	(CGT)
Belgium	1	3	6	0.0
Bulgaria	28	374	269	1.4
Croatia	64	1665	1079	5.7
Czech Republic	6	12	21	0.1
Denmark	21	1,148	506	2.7
Finland	7	582	499	2.6
France(**)	13	723	757	4.0
Germany	181	3568	3283	17.2
Greece	4	7	15	0.1
Italy	98	1747	2065	10.8
Latvia	6	8	23	0.1
Lithuania	9	21	39	0.2
Netherlands**	369	1113	1735	9.1
Norway	36	132	237	1.2
Poland**	140	1414	1313	6.9
Portugal	15	54	86	0.5
Romania	164	3202	2116	11.1
Russia	98	668	653	3.4
Serbia-Montenegro	14	27	49	0.3
Slovakia	28	70	112	0.6
Spain	148	784	1041	5.5
Sweden	3	37	47	0.2
Turkey	332	2650	2345	12.3
Ukraine	70	1264	753	4.0
United Kingdom	9	1	8	0.0
Total	1864	21274	19057	100

자료 1: Lloyd's Register-Fairplay

자료 2: CESA, VNSI

□ 통계표 용어 설명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 Compensated Gross Tonnage 의 약자로서 CGRT 가 선박의 GRT 의 계수를 곱한 것으로 나타내지는데 1982 년 7 월 18 일 IMO 의 1969 년 선박톤 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 효하게 되어 GRT 가 새로운 톤수 단위인 GT 로 대체됨에 따라 1984 년 1 월 1 일부터 CGT 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다.
- GT(Gross Tonnage / 총 톤수)
 - Capacity Tonnage(용적톤)로서 선각으로 둘러싸인 선체 총 용적으로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Space 를 차감한 전용적이다.
- VNSI / De Vereniging Nederlandse Scheepsbouw Industrie 네덜란드어 / The Netherlands' Ship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영어
 - 선박종별 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업체 171 개사가 가입한 네덜란드 조선업협회
- CESA (the 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 유럽 조선업협회)

□ 네덜란드 슈퍼요트 산업(SUPER YACHTS)

네덜란드의 슈퍼 요트(전장 24m 이상의 초호화 요트) 조선소는 가장 큰 배(주로 독일 및 이탈리아 조선소에서 생산되고 있음)를 만들지는 않지만 품질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요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조선소들도 품질 면에서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네덜란드 요트 조선소의 품질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전세계 슈퍼 요트 시장 규모는 연간 400 대 정도로 이 중 360 대는 모터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터 요트(MOTOR YACHT 또는 POWER VESSEL)이며 나머지 40 대는 돛대(SAIL)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세일 요트(SAILING YACHT) 이다.

이 중 약 6~7% 정도의 물량 즉 23~28 척 정도의 요트를 네덜란드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 총 수주 물량 면에서 네덜란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주액 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 네덜란드 업체가 생산하는 슈퍼 요트의 가치는 생산 대수는 줄지만 척당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슈퍼 요트 업체의 경우 조선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1년에 1~2 척 정도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척당 가격도 Royal Huisman 에서 생산되는 세일 요트의 예를 볼 때 최하 2,000 만 유로에서 최고 8,000 만 유로에 달할 정도로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현재 네덜란드 조선소 협회(VNSI)에는 약 170 여 개의 중소 조선소 및 선박기자재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그 중 슈퍼 요트급을 생산하는 조선소는 14 개 사가 있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0 년에서 길게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문 조선소들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고객들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 제작(CUSTOM MADE) 방식을 통해 최고급 요트를 생산하고 있다.

□ 주요 슈퍼 요트 업체 리스트(14 개사)

- Holland jachtbouw, Hakvoort, Jongert, Bloemsma & van Breemen, Kuiper Shipyard,
- Royal Huisman Shipyard, Vitters Shipyard, Heesen Yachts, moonen Shipyard,
- Oceanco, Amels Holland, Feadship Royal van Lent, Van Dam Nordia Shipyard.
- Feadship koninklijke De Vries Scheepsbouw

□ 주요 슈퍼 요트 소개(4 개사)

※ 각 업체별 선박 건조 현황은 2007년 9월 기준 자료임

- Amels(<http://www.amels-holland.com>)
 - 현재 수주량: 10 척(5,600 만 유로)
 - 동사의 52m 짜리 650GT-Semi Custom 171 모델의 성공으로 6 척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며 1 척은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 171 시리즈 1 호인 Deniki 는 올해 4 월에 이미 인도를 마쳤으며 현재 건조 중인 2,3,4 호는 각각 2007 년 말, 2008 년 4 월, 6 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 동 모델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22 개월이 소요되며 전체 기간 중 6 개월은 기본 선체 조립, 16 개월은 의장과 부속 장비 설치에 소요된다.
 - 아멜사의 171 시리즈의 가격은 3,900 만 유로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수주 선박 중에는 아멜사의 첫 번째 64.7m Semi-custom 모델인 212 'Limited Editions' 시리즈가 있다. 2006 년 아멜사는 58m Gu, 68.5m Lady Anne, 64.0m Shanti 등 총 세척의 선박을 인도 했다.
 - 아멜사의 200m 길이의 Vlissingen 조선소에는 총 250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하청 계약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400 명의 직원이 있다. 이 조선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떤 슈퍼 요트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조선소는 주로 의장 및 내장을 전담하고 있고 협력 업체인 Damen Group 의 폴란드 Gdynia 조선소가 기본 선체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 1982 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30 척의 요트를 건조 판매하였다. 아멜사 요트의 가격은 Semi-custom 212 모델의 경우 6,600 만 유로, Full-custom 모델 선박의 경우 4,500~ 5,000 만 유로이다.
 - 아멜사는 Damen 그룹에서 전세계에 운영 중인 34 개 조선 업체 중 하나이다. Damen 그룹은 8,700 명의 종업원과 연 매출액 16 억 유로의 조선 전문 기업이다.
- Bloemsma & van Breemen(<http://www.bloemsma-vanbreemen.nl>)
- 현재 수주량: 10 척(5,600 만유로)
 - 1974 년도에 선체제작 하청업체로 출발하여 1997 년부터 슈퍼 요트를 제조하기 시작 하였고 현재 전장 40.78m, 만재 배수량 215 톤급 알루미늄 선체의 외돛 세일 요트를 건조 중이며 2009 년 인도 예정이다. 2006 년에는 전장 27m 급 모터 요트인 Griffioen 을 인도 했으며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지만 외형은 클래식 요트를 본떠 만들었다. 2005 년 이전에는 48m 급과 29m, 25m 급을 각각 건조했다. 동 조선소는 부부가 운영하는 전형적 인 가족 경영 체제로 네덜란드 대부분의 슈퍼 요트 조선소는 대를 이은 가족 경영 구조가 일반적이다. 조선소 전장은 65m 정도로 주요 부품 및 선체는 외주로 제작되고 본사에서는 조립과 의장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조선소의 총 면적은 약 2,000 평방미터 규모다.
- Feadship(<http://www.feadship.nl>)
- 페드쉽사는 Royal Van Lent 조선소, Royal De Vries Yard 조선소, De Voogt Design & Engeneering studio 가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으로 모터 요트 분야에서 세계 1 위 기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업체다. 직접 고용 인력이 1,000 명, 하청업체 1,000 명 등 총 2,000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양 조선소에서 각각 최대 전장 125m, 180m 규모까지의 요트를 건조할 수 있으며 2006 년에는 86m 급 Ecstasea 를 진수한 바 있다. 컨소시엄 내 양 조선소는 2006 년 각각 65.2m Callicsto 와 70m April Fool 를 진수하였다.
 - 페드쉽사는 최근 Custom-made 요트 주문을 위한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고객들 을 위해 f45 Vantage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 동급은 기본 공통 블록에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양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가격대도 2,800 만 유로대로 통상 5,000 만 유로 대의 Custom-made 요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 현재 페드쉽사는 14 척의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 척은 건조 중이며 5 척은 설계 중이다. 이들 요트들은 컨소시엄 내 두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 중이다.

4) 네덜란드 그린에너지 산업 동향

□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규모

그린에너지 산업의 범위가 넓고 적용 가능한 분야가 다양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네덜란드의 경우, 태양열, 풍력,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시장규모는 52억유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양열 분야는 주택 및 아파트용 집열판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6년 기준 시장규모는 1억 6천만 유로 수준으로 64,700 m²의 집열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풍력발전은 매년 약 200MW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약 50억 유로의 시장을 형성. 2007년 기준 1,826개의 풍력기가 가동중으로 덴마크, 미국, 독일,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입이 많다.

바이오 분야는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소각, 발효, 가스화 등의 방법을 사용중. 네덜란드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중으로 2020년까지 약 5만가구에 공급 가능한 75PJ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수요는 수입 에너지 포함 총 12,000 MW의 규모이며 에너지원 별 발전 규모는 아래와 같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발전 규모

(단위: PJ/TJ/백만 kWh)

에너지원	2005	2006	2007	2008
석탄	342 PJ	325 PJ	357 PJ	338 PJ
석유	1,249 PJ	1,221 PJ	1,352 PJ	1,275 PJ
천연가스	1,480 PJ	1,435 PJ	1,395 PJ	1,454 PJ
원자력	-	-	-	-
신재생에너지 합계	80,538 TJ	86,559 TJ	95,924 TJ	114,151 TJ
태양에너지	1,047 TJ	1,085 TJ	1,123 TJ	1,191 TJ
풍력	17,222 TJ	22,463 TJ	28,193 TJ	35,061 TJ
바이오에너지	59,208 TJ	62,140 TJ	61,581 TJ	71,617 TJ
조력	-	-	-	-
지열 등 기타	733 TJ	871 TJ	877 TJ	840 TJ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44%	2.65	2.87%	3.44%

자료: Milieu & Natuur Compendium, Binnenlands energieverbruik per energiedrager

□ 최근 시장 및 기술동향

네덜란드는 가스 및 석유를 생산, 가공, 수출하는 산유국으로 특히 가스관련 분야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가스 재고량과 석유의 고갈로 인해 2030년에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30%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편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가스와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중이며 2008년 현재 네덜란드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6.5%(국내 소비량 기준)이며 2010년까지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예정이다. 네덜란드 최대 전력회사인 NUON社의 경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21.8%이며 향후 몇 년 내에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혁신분야의 기술발전 및 상용화를 위해 2009년 2월에 1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을 모색하고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에너지혁신 프로그램 및 배정예산 내역

(단위:백만유로)

연번	프로그램명	배정 예산	주요 내용
1	Advanced Dutch Energy Materials(ADEM) innovation lab 지원 프로그램	30	새로운 에너지기술 적용 가속화 - 태양열 패널 재료개발 - 수소활용 프로젝트 - 저중량 풍력터빈 재료 개발 - 고효율 열/냉 저장 재료 개발
2	Building environmnet	30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3	Sustainable mobility	30	고효율 교통시스템 개발 - 하이브리드 또는, 전자엔진 - 바이오가스 엔진 등
4	Heating programme	12.85	잔여열을 이용하는 기술시장 형성
5	Green raw materials	6.67	조류로부터의 에너지 생성 지원

자료: 네덜란드 정부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네덜란드는 EU회원국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 EU 회원국: 총 27 개국

-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15 개국 기존 회원국)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10 개국- 2004 년 가입국)
- 불가리아, 루마니아(2 개국- 2007 년 가입국)

□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

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국과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 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 참고: EU의 자유무역협정 정책 및 체결 현황

1) 지역 통상 협정 체결

- EU의 기본적 통상 정책 방향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시장을 개방하고 유럽산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 부문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유무역 및 시장 개방,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DDA 협상에서 균형된 결과 도출, MERCOSUR, GCC, ASEAN 등 지역 협력체와의 FTA 추진, 지적권, 투자, 정부 조달, 시장 접근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FTA 추진 관련, EU는 MERCOSUR, GCC, ASEAN 등과 같은 지역 협력체와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조달 시장 개방 관련 EU 기업에 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

2) 지역 통상 협정 체결 현황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상품 관세 동맹)
 - EU 연합(27)
 - 관세 동맹: 안도라, 터키
 - FTA:
 - 유럽: Faroe 아일랜드(덴마크),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1.1일부터 EU 가입)
 - 지중해: 알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칠레, 멕시코, 남아연방, 일부 OCT/PTOM II

- GATT Article XXIV 하에 통보된 협정(자유무역지역 및 서비스 관세동맹)
 - EU 연합(27)
 - 여타 유럽: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1일부터 EU에 가입됨)
 - 여타 지역: 칠레, 멕시코
- WTO에 통보되지 않은 협정(상품 교역)
 - 산마리노
- 기타(EU가 WTO에게 포기권 요청한 협정으로 특혜 무역 협정임)
 - ACP
-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3) 양자 간 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자 간 협상(협상 개시 및 협상 중 포함)

- 협상국
 - ACP/EPAs,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백러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중국, 이집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레바논, MERCOSUR, 몰도바, 몬테네그로, 모로코, 팔레스타인, 러시아, 세르비아, 시리아, 튀니지, 우쿠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 협약 유지 확대, 네덜란드는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60여 개국과 광범위한 과세 협약을 체결

4) 과세 협약

-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 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만약 과세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는 'Unilateral Decre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라는 국제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으며 'EC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은 EC 회원국 간의 배당금 지급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천징수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참고: 네덜란드의 법인세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007년 최저기준 20%로 OECD 평균 28%, EU 평균 25%. 남미 28%, 아태 지역 29%에 비해 낮으며 2004년부터 매년 인하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네덜란드에 설립한 외국 기업이 상기 각종 면세, 감세 제도를 활용 할 경우 법인세 20%도 실제 납부 금액은 세계 최저 수준 범주에 속함.

아울러 2008년부터 적용되는 네덜란드 법인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 최초 과세 대상 이윤 40,000유로 까지 20%, 40,001~200,000유로는 23%, 200,000유로 초과는 25.5%를 부과함.

현재 정부에서 23% 세율구간을 20%에 합병하여 200,000유로까지 모두 20%를 적용하는 2단계 세제안을 제안한 상황이며, 법령통과여부에 따라 빠르면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참고: 아래 자료는 2009년 9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가. 교역 규모

네덜란드의 교역 규모는 2008년 말 기준 1조79억 달러에 달했다. 수출은 5,321억 달러, 수입은 4,758억 달러로 563억 달러의 무역 흑자 구조를 보였다.

네덜란드의 무역수지

(단위: 십억 USD)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상치)
수출	345.3	390.7	461.0	532.1	380.5
수입	297.8	342.2	406.2	475.8	342.9
무역수지	47.6	48.5	54.8	56.3	37.6

자료: EIU Country Report

나. 교역 주요 국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교역의 약 65% 정도가 회원국 간 역내 교역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EU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교역이 급증하여 역내 교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기준 네덜란드의 최대 교역국가는 독일로 전체 교역 규모의 약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독일	71,499	80,398	92,802	96,186	107,627
2	벨기에	34,320	42,169	42,045	53,710	62,405
3	영국	28,927	29,575	32,512	36,292	38,019
4	프랑스	28,102	30,399	31,017	33,243	35,807
5	이탈리아	17,010	18,173	18,290	19,511	19,583
6	미국	12,017	13,702	16,255	17,512	16,771
7	스페인	11,231	13,114	13,122	14,269	14,559
8	폴란드	5,786	5,740	6,641	7,080	8,074
9	스웨덴	5,642	6,429	6,631	6,883	7,143
10	러시아	3,364	4,539	5,537	6,821	7,141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독일	45,830	48,389	56,287	62,636	65,860
2	중국	18,985	25,721	30,926	37,484	40,457
3	벨기에	24,977	27,202	31,411	33,369	34,961
4	미국	20,272	22,021	25,268	26,181	25,694
5	영국	16,277	16,857	19,309	20,672	22,501
6	러시아	6,772	12,294	15,327	15,958	18,531
7	프랑스	12,787	13,617	15,122	15,759	17,319
8	일본	9,382	9,342	10,098	11,076	11,522
9	이탈리아	6,088	6,711	7,280	7,815	8,106
10	노르웨이	5,786	5,740	6,641	7,108	8,362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 구분: HS 4 단위

다. 교역 주요 품목

네덜란드의 경우 교역량의 상당 부분이 중계 무역 형태로 수입 후 다시 EU 각국으로 수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08년 기준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역청유, 자동 자료 처리기기, 인쇄기기 및 부품, 전화기, 디지털 통신기기 및 부품, 원유, 사무기기 및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자동 자료 처리기기, 사무용기기 및 부품, 석유 및 역청유 등이다.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별	2005	2006	2007	2008
1	석유 및 역청유	19,606	25,482	26,148	37,947
2	자동 자료 처리기기	22,356	23,182	16,360	15,593
3	원유	6	9,163	9,879	12,942
4	전화기, 디지털 통신기기 및 부품	2,195	2,351	9,954	11,527
5	인쇄기기 및 부품	593	657	10,233	10,120
6	의약품	6,680	7,624	7,891	7,639
7	사무용기기 및 부품	11,742	14,223	8,604	7,298
8	TV 및 영상기기	1,912	2,765	5,339	4,854
9	의료기기	3,905	4,216	4,170	4,271
10	트랙터	2,696	3,257	3,963	3,847

네덜란드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별	2005	2006	2007	2008
1	원유	26,146	31,935	32,254	41,533
2	석유 및 역청유	9,488	12,753	13,679	18,140
3	자동 자료 처리기기	21,960	23,411	15,071	15,043
4	전화기, 디지털 통신기기 및 부품	2,493	2,292	12,080	13,640
5	승용차	8,212	8,328	8,213	8,705
6	인쇄기기 및 부품	419	487	8,027	8,139
7	사무용기기	10,726	13,524	8,232	7,506
8	의약품	6,972	7,494	7,505	7,139
9	TV 및 영상기기	2,516	3,343	5,893	5,536
10	알루미늄	2,127	3,660	4,209	3,765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 구분: HS 4 단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규모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 EU 2번째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에 우리나라는 2008년 64억 달 러를 수출하여 전년 대비 42.7%로 대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 들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기준 15억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8.2%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08년에 32억불을 수입하여 12.5% 감소하였고 2009년 4월기준 약 5억 불을 수입하여 64.5%의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네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609	-1.0	4,489	24.4	6,405	42.7	2,474	-13.0
수입	3,025	9.6	3,703	22.4	3,239	-12.5	1,016	-56.4
수지	584	-34.2	786	25.7	3,166	402.0	1,457	-21.1

자료: KOTIS(2009.9 기준)

나. 교역 주요 품목 및 특징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교역 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 한국이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유기화학품 등의 제품 생산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마케팅 활동은 다소 취약한 편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높은 인건비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네덜란드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LG전자와 필립스의 합작투자 협력 관계였는데 올해3월 들어 필립스는 핵심사업 전환에 따라 LG 필립스의 지분을 처분하였다. 네덜란드는 마케팅 지원이 가능해 네덜란드 중개상을 이용한 유기 화학품 및 중 고 기계의 대 동구권 진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출 호조 품목으로는 경유, 컴퓨터 부품, 정밀화학원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나프타, 반도체 생산관련 기자재, 선박용 부품, 의약품, 낙농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출 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8		2009(1월~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405,585	42.7	2,474,096	-13.0
1	광물성연료, 광물류	3,205,909	220.7	1,252,438	71.2
2	전기기기과 부분품	837,677	-5.8	363,188	-31.3
3	원자로, 보일러	934,851	-22.7	289,131	-57.3
4	철도 차량 및 부속품	365,437	-25.1	100,994	-57.6
5	선박과 수상구조물	108,404	-6.8	84,247	-22.3
6	고무와 그 제품	108,092	-22.4	65,642	-9.2
7	유기화학품	125,727	119.9	53,926	6.6
8	플라스틱 및 제품	127,156	35.4	47,118	-36.4
9	철강	185,114	34.9	36,373	-68.9
10	철강의 제품	58,244	24.3	34,077	22.8

주: 품목 구분: MTI 2 단위

자료: KOTIS(2009.9)

한국의 대 네덜란드 주요 수입 품목 및 금액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8		2009(1월~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39,608	-12.5	1,016,552	-56.4
1	정밀기계	1,410,693	-14.0	203,226	-82.1
2	광물성연료	103,097	-19.8	106,106	8.7
3	산업용 전자제품	180,428	12.5	74,870	-32.8
4	석유화학제품	172,183	40.7	71,844	-43.4
5	정밀화학제품	164,977	13.4	68,238	-32.3
6	수송기계	112,531	-0.1	56,411	-13.6
7	축산물	140,003	16.9	55,781	-35.2
8	기초산업기계	103,909	-22.5	53,458	-22.2
9	농산물	108,870	2.2	49,248	-23.8
10	산업기계	107,101	-	43,349	-35.9

주: 품목 구분: MTI 2단위

자료: KOTIS(2009.9)

3. 수입규제제도

네덜란드의 대외 통상 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 지침에 따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 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재수출로 연결되어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육류,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농수산물 장관 허가 : 농수산물 수입령이 정한 가축, 육류, 과일, 낙농 제품
- 경제성 장관 허가 : 공산품 수입령이 정한 석탄, 철강, 석유류 등
- 관계 부처 장관 허가 :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및 원산지 불명 제품

네덜란드 독자적인 수입 관리 및 규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EU의 통일된 지침 및 규격, 관리와 수입 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개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5. 관세제도

가. 개요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과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과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네덜란드 경우에는 19%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네덜란드 검사 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통일 인증 마크인 CE Marking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 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덜란드 내에서는 94%가 인지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 제도

동 인증은 네덜란드 KEMA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도에 국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 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동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 천 종의 제품은 동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동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마다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 정기 검사에도 수천 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 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 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년 5월말 기준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 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제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	--

▶Energy 2000

	☐ 개요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	--

나. 네덜란드 검사 및 인증 관련 기관

- KEMA Corporate
 - Add: P.O.Box 9035, 6800 ET Arnhem, The Netherlands
 - Tel: +31 (0)26 356 9111, Fax: +31 (0)26 389 2477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KEMA-KEUR 인증기관

- Dutch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
 - Add: P.O.Box 5059, 2600 GB Delft, The Netherlands
 - Tel: +31 (0)15 269 0390
 - Fax: +31 (0)15 269 0190
 - Email: info@nen.nl
 - Homepage: www.kema.com
 - Remarks: 네덜란드 국가 표준원으로서 네덜란드 및 EU 표준에 관한 정보 제공

7. 지적재산권

가. 특허권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은 1995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특허는 산업 재산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Rijswijk 소재 Bureau voor de Industriële Eigendom)

네덜란드의 특허법은 장기 보호와 단기 보호로 나누어지며, 장기 보호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데 20년간 보호되며, 단기 보호는 6년간 보호된다. 특허 요건 중의 하나인 참신성(novelty)에 관한 조사를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에 필요하다거나, 특허 부여 후 3년 이내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출원자에게 라이선싱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 특허 출원자가 선 특허 출원자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나, 중요한 신 기술일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파리협약(1975), 유럽특허협약(1973), 특허협력협정(1970), 스트라스부르크 협정 (1963)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럽공동체 특허 협약에도 1989년도에 참가하였다.

유럽공동체 특허는 원헌 또는 하부 기관이 있는 Rijswijk에서 등록할 수 있다.

- European Patent Office
 - Add: Patentlaan 2, 2280 HV Rijswijk
 - Tel: +31(0)70-3402040
 - Fax: +31 (0)70-3403016
 - Homepage: www.european-patent-office.org/

나. 상표권

1) 상표권 제도 개요

1971년 베네룩스 3국은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EU 지침에 따라, 상표 규정에 맞춰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하였다(EC Directive 89/104, 1998년 12월 21일).

상표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이 그에 있는 베네룩스 상표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The Benelux Trademarks Office
 - Add: Bordewijklaan 15, 2591 XR Den Haag
 - Tel: +31 (0)70-3491111 / Fax: +31 (0)70-3475708
 - Homepage: www.bmb-bbm.org/gb/pages/index.htm

마드리드 협약 회원국으로 동 회원국에 일괄 상표등록을 할 경우, 이 시스템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1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무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상표 등록 방법 및 절차

개인, 회사, Organization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Formulier voor het Benelux-Depot van een merk", 소위 A-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는 브랜드가 레터(Letter)로 구성되어있는 경우는 브랜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브랜드가 레터(Letter)와 로고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10개의 흑백사진을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이전에 등록할 브랜드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Verzoek betreffende onderzoek naar eerdere inschrijving" 소위 B-form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The Benelux Trade Mark Office는 B-form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상표나 로고가 중복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등록 신청자나 기관은 Benelux Merken Bureau로부터 등록 상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며, 만약 등록 상표나 로고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자가 원할 경우 BMB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에 통보가 되며, 이미 등록된 회사나 기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상표나 로고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자가 등록을 추진할 경우, 이미 등록된 기관이나 회사, 또는 개인이 지적 소유권을 발효하여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 기간으로는 제출한 날짜로부터 약 6~7개월이 소요되나, 등록 신청자가 'Fast Search'(비용은 별도)를 택할 경우 6주 정도가 소요된다.

유효 기간, 등록 상표 개정 및 취소와 관련,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으로는 신청 허가 날짜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등록 상표 개정은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 상표 취득 후 향후 3년간 또는 5년간 등록 상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 등록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상표가 사용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별 케이스로 등록 상표 취득에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등록 상표권을 발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법적인 시비는 불가피하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외국업체가 베네룩스 3국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 등록된 회사를 통하여 등록 상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은 자국에서 세계 각국의 상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하며, 개성이 포함됨 (original and personal character)'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1886),

국제저작권협약(1952)에 가입되었으며, 1912년 네덜란드 법으로도 보호 받는다. (Auteurswet 1912)

서적, 영화 등의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간이며, 음반은 50년이다.

라. 저작권접권

네덜란드는 1993년 저작권접권법(Wet op de naburige rechten)을 제정하여, 예술가, 프로듀서, 음반업자, 방송국 등은 저작권과 관련한(저작권을 이용한 새로운 편성 등) 인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별도 등록은 불필요하며, 공연 등이 이루어진 후의 다음해 1월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마. 디자인

디자인의 경우에도 네덜란드를 포함, EU회원국들은 영내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 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절차 흐름도

EU 회원국 밖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물품은 먼저 통관이 되어 자유 물품(free goods)이 된 후 EU 내 판매가 가능하다. 통관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류 창고로 옮겨진 후 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 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창고 보관→세관 신고 및 통관→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나. 소요 시간 및 제출 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주요 항구

네덜란드의 주요 항구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구가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로테르담항을 경유하고 있다. 로테르담항만 물량은 암스테르담 물량의 10배 수준에 달한다.

라.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 약 137.5유로(아시아 운송), Security Charge(ISPS) 15유로,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지역)는 약 200유로가 소요된다. (2009년 5월 기준)

마. 한국-주재국 간 운송 소요 기간

한국-네덜란드 구간 해상 운송 소요 시간은 항해 루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로테르담 직행 루트 24-27일, 한국-함부르크-로테르담 26-29일 정도가 소요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네덜란드의 경제 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 면적: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세계 7 위의 무역 대국
 - 초대형 다국적 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 기업 중 13 개, 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 물량의 60%, 수출 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항 보유(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치열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45 억 달러(세계 시장의 60% 공급)
 - 첨단 기술 개발로 화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유럽의 경제 발전 Model
 - Polder Model: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 열악한 국토 환경 하에서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 산업 육성, 성장

나. 투자 적격지로서의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

1)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 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 억 7,000 만 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 소재
- 유럽의 3 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 공업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 공업 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
- 로테르담에서 주요 도시까지 거리 및 운송 수단별 소요시간

도시명	거리(km)	도로/기차	운하
오스트리아(비엔나)	1,180	2 일	10 일
프랑스(릴리)	825	1 일	2 일
독일(베를린)	710	2 일	8 일
헝가리(부다페스트)	1,435	3 일	11.5 일
폴란드 (바르샤바)	1,285	4 일	10.5 일
체코(프라하)	890	3 일	-
스위스(바젤)	670	2 일	4 일

자료: Rotterdam Hinterland Connection, Port of Rotterdam

2) 풍부한 사회 간접 자본

□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 상하이, 닝보,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4 위의 물동량. 처리 능력은 연간 1,078 만 TEU 의 컨테이너와 4 억 210 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항을 경유.
- 유럽 주요 20 개 항구 비교

(단위 : Number x 1,000 TEU's)

항구	국가	2008	2007	2006	2005
Rotterdam	Netherlands	10,784	10,791	9,653	9,288
Hamburg	Germany	9,737	9,890	8,862	8,088
Antwerp	Belgium	8,663	8,176	7,018	6,488
Bremen	Germany	5,529	4,912	4,450	3,735
Valencia	Spain	3,602	3,043	2,612	2,410
Gioia Tauro	Italy	3,468	3,445	2,938	3,209
Algeciras	Spain	3,324	3,414	3,257	3,179
Felixstowe	United	3,200	3,300	3,000	2,700
Barcelona	Spain	2,570	2,610	2,318	2,071
Le Havre	France	2,450	2,638	2,137	2,058
Marsaxlokk	Malta	2,300	1,887	1,485	1,321
Ambarli	Turkye	2,262	1,940	1,446	1,186
Zeebrugge	Belgium	2,210	2,020	1,653	1,408
St.Petersburg	Russia	1,983	1,970	1,450	1,121
Genoa	Italy	1,767	1,855	1,657	1,625
Southampton	United	1,710	1,900	1,500	1,374
Constantza	Romania	1,381	1,411	1,018	771
Piraeus	Greece	1,360	1,373	1,403	1,395
La Spezia	UK	1,246	1,187	1,137	1,024
London	United	1,167	844	743	735

자료: Port of Rotterdam

- 로테르담항 항만정보시스템(INTIS): 로테르담항은 INTIS 라 불리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함.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국제공항

- 스키펴 공항은 승객 기준 유럽 5 위(4,740 만명, 2008 년), Cargo 기준 유럽 3 위(156 만톤)의 공항으로, 전 세계 87 개국 262 개의 지역 취항함.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 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함. 1980 년 이후 약 140 개의 공항관련 상을 수상.

○ 유럽 주요 공항 비교

(단위: 1000명, 1000건, 1000톤)

Airport	Passenger Movements	Air transport Movement	Cargo Transport
London Heathrow	66,910(1)	473(3)	1,401(4)
Paris Ch. De Gaulle	60,678(2)	551(1)	2,039(1)
Frankfurt	53,234(3)	480(2)	2,021(2)
Madrid	50,846(4)	470(4)	329(10)
Amsterdam	47,392(5)	428(5)	1,568(3)
Rome Fiumicino	35,133(6)	341(7)	
Munich	34,447(7)	408(6)	
London Gatwick	34,179(8)		
Barcelona	30,208(9)	321(8)	
Paris Orly	26,206(10)		
Vienna		266(9)	
Copenhagen		264(10)	
Luxembourg			795(5)
Brussels			659(6)
Cologne			565(7)
Liège			515(8)
Milaan Malpensa)			404(9)

자료: Schiphol Airport

-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 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 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 운송 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함. 도로는 총 연장 134,000km, 수로는 6,200km, 철로는 6,500km 임. 도로 포장률 90% 이상이며, 선박 운행 가능 내수로는 5,000km, 이 중 1,500 톤 이상의 대형 선박 운행 가능 수로는 1,800km 임.

3)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 네덜란드는 세계 7 위의 무역 대국이며, 세계 5 위의 대외 투자국.
- 3 만 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 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 여 개의 물류 전문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학위 및 물류 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로테르담 해운물류대학(STC-R.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in Rotterdam)
 - 광양분교 개설 (2007.9.10)

4) 효율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의 세관시스템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 받지만 운용면에서는 EU 국가별로 관세법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음. 물류 반입 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의 물류 수송이 가능하며,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

5)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 남녀노소 및 직업 구분 없이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이외에 독어, 불어 등 기타 외국어 구사도 우수.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 시장 보유.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고용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 손실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음

다. 네덜란드 비즈니스 환경의 단점

□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 고용시장

-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평균 근로 시간이 적은 편에 속함.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령과 문화 때문에 종업원 결근이 많고, 정규직 해고 시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 부문 및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정부, 근로자와 기업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국 별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네덜란드 연도별 국가별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1Q
영국	10,250	620	25,478	-1,626	480
벨기에	4,228	6,562	16,140	-8,283	-1,365
독일	-851	-889	2,524	2,129	601
핀란드	48	395	57	-14	114
프랑스	7,176	-5,936	20,005	3,123	1,265
그리스	12	-164	-6	-5	-2
아일랜드	2,723	1,755	324	-216	1,193
이탈리아	916	823	-545	150	7
룩셈부르크	5,640	-1,466	6,784	3,830	986
오스트리아	584	120	91	134	18
미국	907	973	15,187	4,586	-1,871
홍콩	-30	-32	18	33	-51
일본	226	2,155	1,174	225	47
인도	-49	3	1	-1	0
러시아	23	21	53	45	3
노르웨이	-29	-504	460	1,282	217
기타	-1,804	1,548	-1,348	1,276	61
총계	38,430	5,939	86,490	-6,074	4,243

주: 2009. 9월 기준 업데이트 자료, Flow 기준, IMF Balance of Payment의 기준에 준용
 자료: DNB (네덜란드중앙은행, 2009.9)

나. 네덜란드 지역별, 업종별 투자 개황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작은 국가이며, 전국이 고루 발달하여 로테르담 항만 지역 또는 암스테르담 공항 지역(스키폴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외국 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투자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내외국 기업간의 비차별적 대우는 물론 지역별, 업종별 투자유치환경을 특성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통계나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의 자국화 진전, 자국 기업의 외국자본 침투로 내외국 기업 간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별 자본 이동에 의거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최근 3년간 금액 기준 최대 투자국은 영국에이며, 미국과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고용 창출 규모를 기준으로 ICT(27%의 고용점유), 전자전기(11%), 기계류(10%) 등으로서 IT와 제조업이 외국 기업 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로 인해 국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된 외국기업의 투자실적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은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할 수 있다.

1) 대 네덜란드 투자 개요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 기업들의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되어 왔다.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 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가 다수 설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적 기업의 제3국 우회 투자 기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UNCTAD 집계에 의한 네덜란드의 투자 유치 실적은 연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 지역 등으로 투자 거점을 분산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서는 투자자금의 유출입 금액을 투자 통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집계 기준이 달라 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DNB 통계는 다국적 기업의 본 지점 간 대출 및 재투자, 그룹 내부 기업 간 포지션 변화 등의 제반 금융 거래를 반영하고 있어 순수 FDI 투자 실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2) 물류 중심지로서의 외국 기업 투자 동향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입지의 강점은 (1)우수한 인프라, (2)좋은 기업환경, (3)발달된 물류서비스, (4)친기업적인 정부 등을 들고 있다.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70%가 European Logistics Center로 네덜란드를 선택하고 네덜란드 수입액의 40%가 다른 유럽 지역으로 재수출되며, 이는 약 1,200억 유로에 이른다.

네덜란드에 EDC의 설치 외국 기업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Deltran Corporation, Fuji Heavy Industries, Perfect Fit Industries, TYC Europe, 화학의 경우 Essential Industries, Masterank Ltd., Sattler, Toyo Gosei, 의류 및 스포츠용품의 경우 Altama, Dunlop Slazenger Group, Macpac wilderness Equipment, 식품 및 음료의 경우 GUM Products International, Heritage Health, Vodka Cruiser 등 다수가 있다.

3) 제3국 우회 투자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 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 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 회사 및 금융 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도 많이 설립되어 왔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제 3국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한 후 이를 통해 제 3국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네덜란드 기업 명의로 한국에 투자하는 사례 중 필립스, ING 등 네덜란드 토종 기업의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제3국 기업의 네덜란드 우회 투자이다.

외국 투자 기업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간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던 케이먼 군도 등 카리브 연안 지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세 가능 국가로, 절세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이 설립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수가 2008 년 기준 약 2,000 여 개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1,200 여 개도 절세를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 회사들은 네덜란드 내 투자뿐만 아니라 제 3 국 우회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다.

4) 최근 외국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동향

동구권으로 투자 거점 이전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질 FDI 감소 추세, 유럽의 투자 유치 강국 네덜란드의 투자 유치 실적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 환경 악화, IT 서비스 부문의 투자 유치 감소, 숙련 노동자 및 대단위 투자 유치 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투자 유치 강점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며, 동 부문은 여전히 유럽 경쟁국에 비해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약 등 여타 부문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관심이 동구권 및 중국 등 제 3국 신흥 시장으로 이전 되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투자 유치 환경 및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에 투자한 외국 기업 수는 2009년 5월 기준 6000개 이상으로 집계되어 2006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외국 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NFIA, HIDC, Ernest & Young, DNB, UNCTAD WID Country Profile, Financial Dagblad)

5)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 매력은 여전

네덜란드 투자 유치 강점 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네덜란드 본토 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러시아 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물류 거점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 여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서부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네덜란드 투자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 진출 실적(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 진출

(단위: 건, 천 달러)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송금 건수	투자 금액
2006	29	9	240,755	36	124,065
2007	34	15	686,247	65	624,703
2008	56	11	837,233	87	649,277
2009 2Q	22	1	462,458	68	236,160
누계(68~09.2Q)	319	120	4,952,965	410	3,953,288

주: 2009년 9월 기준 최신 통계 자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 투자 현황 통계

나.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 진출 현황(도착 기준)

한국의 대 네덜란드 업종별 투자 진출 현황(신고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산업별	2009 2Q		누계(1968~2009 2Q)	
	투자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415
광업			18	208,369
제조업	9	128,947	85	2,771,10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220,000	2	220,1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0
건설업	2	49,894	15	235,895
도매 및 소매업	2	5,125	111	809,953
운수업	1	3,663	20	22,883
숙박 및 음식점업			1	1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51,322
금융 및 보험업	4	13769	13	115,2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23,9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41059	26	328,9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3,2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60,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434
총 계	22	462,458	319	4,952,9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 투자 현황 통계 - 2009년 9월 기준 최신 통계자료

다. 우리 기업의 지역별 투자 동향

우리 기업의 대 네덜란드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유럽 공동물류센터’ (KEDC, 주관자는 KOTRA 암스테르담KBC)의 운영으로, 중소기업형 현지 법인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네덜란드 투자 진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 유럽 물류센터: LG 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쉘볼릿 자동차, 한국타이어, 하이로 등
- 조립 생산 공장 및 서비스 센터: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필립스 등
- 유럽 마케팅 및 판매 센터: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대상 등

상기와 같은 투자 진출 유형에 맞추어 지역별로는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투자 및 암스 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마케팅 중심형 투자 지역으로 대별된다.

- 로테르담 항만 지역 투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등
- 암스테르담 공항 지역 투자: 엘지전자, 메디슨, 히타치-LG, 이수화학 등
- 기타 지역: 대우자동차부품(브레다 지역) 등 교외 지역 도시에 산재
- 2007 년 말, 대우 세브로레는 딜러 체제로 전환, 팬택은 철수했다.

라. 우리 기업 주요 진출 현황표

회 사	형태	전화	FAX	주재원수
삼일회계법인	N.V.	020-568-4296	020-568-4285	4
쉐비유로파츠센터	B.V.	076-593-7054	076-593-7060	2
WIDE 유럽	Branch	020-311-9797	020-311-9790	2
범한판토스 베네룩스	B.V.	020-659-0101	020-659-0110	1
한진해운	Branch	010-403-8585	010-403-8463	5
딜로이트	B.V.	020-582-4260	020-582-4025	1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	B.V.	015-219-7039	015-219-6306	9
삼성전자CIS법인	B.V.	015-219-6371	015-219-6391	1
LG전자 Benelux 판매법인	B.V.	036-547 8740	036-547-8701	6
SK Energy Amsterdam Office	Branch	020-714-7810	020-714-7819	1
삼성전자(물류)	B.V.	015-219-6204	015-219-6322	14
고려제강	B.V.	018-366-6060	018-366-5021	3
아시아나 항공 암스테르담 지점	B.V.	020-655-1755	020-655-1757	1
KPMG	B.V.	020-656-4625	020-656-8720	1
외환은행 암스텔담지점	Branch	020-546-9331	020-546-9339	3
현대엔진 유럽 서비스 센터	B.V.	010-447-3457	010-202-6674	7
TOPA Netherlands B.V.	B.V.	010-415-6296	010-262-2502	1
대상	B.V.	020-640-6080	020-640-1830	2
대한항공(카고)	Branch	020-405-9766	020-653-0555	1
대한항공(여객)	Branch	020-655-6338		2
마이크로젠	B.V.	020-545-3346		3
Samsung Pleomax Europe	Branch	010-283-9679	010-283-9668	1

회 사	형태	전화	FAX	주재원수
수산중공업	Branch	018-164-7194	018-164-1038	2
한국농업무역관	B.V.	010-415-1024	010-462-1271	1
한국타이어(판매)	B.V.	018-135-3025	018-136-2358	2
한국타이어(물류)	B.V.	019-135-3046	019-136-2358	0
현대상선	B.V.	010-280-2580	010-280-0583	3
현대중공업	Branch	010-212-1567	010-212-5134	4
Hi Logistics Europe	B.V.	018-048-5973	018-048-5955	2
HLDS Europe	Branch	020-316-0613		3
KOTRA	N/A	020-673-0555	020-673-6918	4
LG전자 (물류/svc)	B.V.	036-547-9833		8
LG전자 (Shared SVC)	B.V.	036-547-8884		8
LG CNS	B.V.	036-547-8930	036-547-8796	8

자료: KCCN (Korea Company Community in Netherlands)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법 개요

네덜란드에는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 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 유치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없으며,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의거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내외국 기업 구분 없이 기업 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 지점 설치, 법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 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 분야에는 로테르담 항만청 등 부문별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 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다. 인센티브 개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네덜란드 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이전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혜택은 네덜란드 내 설립된 법인 모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인 금융 혜택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 많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네덜란드 세무 당국의 법인세 관련 편의 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와의 특수 거래 관계에 대한 법인세율 사전 확정 제도 등은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 관계를 사전에 고정된 비율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네덜란드를 해외 진출의 거점으로 삼는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는 상기 간접적인 인센티브 외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제도이다.

1) 중앙정부의 IPR(지역 투자 보조금)

-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 지역이 주요 수혜 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 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의 25%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

2)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ESF-II(유럽연합 사회기금-II)는 신규 채용, 실업 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EFRO(지역 개발 펀드)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 시 제공

3) 수출 촉진 제도

- EVD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4) 고용 보조금

- 지역 고용 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5) 환경, 에너지 인센티브

- 환경의 경우, 유럽연합의 EU THERMIE 프로그램 수혜 가능
-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상황 호전에 기여한다는 추천을 받는 경우에 수혜 가능

6) R&D 보조금

- BTS: 환경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 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 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 지원

7)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 여부 및 인센티브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 취득의 경우로서, 회사 설립, 인수 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 회사 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재투자 이익 잉여금, 그룹사 간 계정 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 투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 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 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 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 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 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라.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투자 진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령, 제도 관련 문의 시 충분한 답변을 해 준다. 특히 서울주재 네덜란드 대사관 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NFIA는 네덜란드 투자 기관인 EVD와 2008년 법령에 의해 통합되었으나, EDV의 Operational Unit으로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 네덜란드 본부(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 NFIA)
 - Add: Beuzenhoutseweg 2, P.O.Box 20101, 2500 EC The Hague, The Netherlands
 - Tel: +31 70 379 8818
 - Fax: +31 70 379 6322
 - Website: <http://www.nfia.nl>
 - Remarks: 투자유치 총괄 및 외국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 투자 유치 기관
- 서울 사무소
 - Add: Kyobo Building, 13th fl., Chongno 1-ka, Chongno-ku, Seoul, Korea
 - Tel: +82 2 732 1924
 - Fax: +82 2 732 1925
 - Homepage: <http://www.nfia-korea.com>
 - E-mail: info@nfia-korea.com
 - Remarks: 한국 기업의 네덜란드 진출 지원

(자료: NFIA, PWC Netherlands,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료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네덜란드의 외국 기업 진출 형태는(1)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2)지점(Branch), (3)법인 설립 등으로 나누어지며, 법인 설립은 다시 유한회사(B.V.)와 주식회사(N.V)로 나누어 진다.

업체 설립 형태는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이 자격 조건이나 설립 요건이 동일하며 외국 기업도 내국 기업과 같은 방법에 따라 현지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한다, 일단 등기 후 에는 ‘외투기업’ 등 별도의 법적 지위 없이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진출 분야도 중앙은행 및 공용 방송 사업 외에 업종별 제한은 없다.

네덜란드의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단 국가 중앙은행(한국은행에 해당)과 네덜란드 국영 공용방송(TV, 라디오)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및 유사 형태 기관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나 은행, 방송업도 상업적 목적 하에서는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업, 비즈니스 서비스업(법률, 회계, 컨설팅 등),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모두 개방되어 있다.

가. 대표 사무소(The Representative Office, The Liaison Office)

1) 대표 사무소 설치 개요

대표 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으며, 시장정보 수집 또는 국내 연락망으로서 활동한다. 대표 사무소는 현지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무실 운영의 필요에 의거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해야만 회사명의로 은행구좌 개설, 전화설치 및 자동차임대, 직원 채용 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표 사무소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대표자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는 받아야 하며,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현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 사무소가 그 사업 활동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표 사무소 설치 절차

대표 사무소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절차는 '지사'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지사(The Branch Office)

1) 지사 설립 개요

지사는 현지의 독립 법인체가 아닌 모기업의 일부인 지점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B.V.라고 하는 유한 책임회사 형태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등록은 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에는 회사 등록증 발급을 위한 상공회의소 등록 절차와 부가세 번호 등 발급을 위한 국세청 등록 등 2가지의 등록 절차가 있다.

2) 지사 설립 시 필요 정보 리스트 및 절차

- 회사명
- 회사 등기부 등본
 - 등록된 회사명, 등록 주체, 주소, 등록된 국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 발급 후 1개월 미만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공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해외 법인의 대표 이사(Executive Director)와 지점 관리자(Branch Manager)에 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일반 정보(국적,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회사 입사 날짜, 결혼 여부, 등)
 - 공증된 여권 사본
 - 개인의 은행 계좌 정보

- 네덜란드 내에서의 주소
 - 지점 사무실의 임대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지점장이나 담당자에 대한 위임장(A Letter of Authorization)
-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 상기의 서류들을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로 공증하여 등록 후 사본을 요청한다.
 - 상공회의소 연락처: Kamer van Koophandel Amsterdam(KVK Amsterdam)
 - Add: De Ruyterkade 5, 1013 AA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31-(0)20-5314000 / Fax: 31-(0)20-5314799
 - Homepage: www.kvk.nl(신청 절차 상세 안내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국세청 등록(세무 번호 취득): 설립 후 네덜란드 Tax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현지 회계법인 연락
 - 세무 신고서 작성: 'Opgave Gegevens Startende Onderneming'(Statement of Information for Starting Up a New Business)
 - 2006년 7월부터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인에 대해 업무 시작 적어도 하루 전에는 네덜란드 지역 Tax Office 'Firstday registration form'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신청서는 3일 내에 네덜란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회사가 설립되면 Tax Office에서 관련 활동을 신고하라는 요구 서류를 지사나 대표 사무소로 발송하게 된다
 - 국세청 연락처: Belastingdienst Amsterdam
 - Add: kingsfordweg 1, 1043 GN Amsterdam, The Netherlands
 - Tel: 0800-0543 / Fax: 31-(0)20-6877299
 - Homepage: www.belastingdienst.nl(신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지사 설립의 장단점

- 장점
 -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는 지사 설립이 법인 설립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비밀 유지가 용이하다.
- 단점
 - 지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모기업(본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B.V.(유한책임회사) 또는 N.V.(주식 회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외국 기업들은 지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 법인 설립(B.V.)

1) 법인 설립 개요

- 네덜란드에서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B.V.)와 주식회사(N.V.)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증시 상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B.V.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유한책임 회사는 주식 공모를 할 수 없으며 주식 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 지사 설립 시에는 공증인이나 일반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 법인 설립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법인 설립 시 필요 정보 리스트

- 회사명(Name of the Company)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위임장은 승인된 대표나 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 법무법인의 공증인이 설립 자를 대신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을 위임하는 서류로 서명권자의 권한을 대행한 변호사가 작 성한 간단한 법률적 진술서가 필요하다.(법무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서식 제공)
- 설립자(Incorporator)
 - 설립자가 네덜란드인이거나 네덜란드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설립자는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되며, 한국의 모회사인 경우는 모회사의 이름, 주소, 공증된 모회사의 등기부 등본, 가장 최근 연차 보고서, 개인의 경우는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기타 개 인 정보
- 이사진 명단(Members of the BoD of Dutch B.V.), 감사 명단(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of Dutch B.V.)
 -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감사 명단은 필요 없다.
 - 국적,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회사에서의 권한에 대한 정보, 여권 사본 등 필요
- 설립하게 되는 B.V.의 이사의 권한에 대해 지정한 선언문(Declaration)
- 승인, 발행 납입 자본금
- 은행 인증서(Bank Letter of Good Standing)
 - 설립자/이사진의 윤리적 거래와 지불 능력 상태에 대해 설립자의 거래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은행의 로고가 인쇄된 편지지에 내용과 서명이 필요하다.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모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Business Registry)
- 모회사의 회사 등기부 등본: 발급 후 1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정관 작성에 필요한 정보(Articles of Association of Dutch B.V.)
 - 하기 사항은 법무법인의 공증인이 Dutch B.V.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정보 사항이다.
 - 회사명, 회사 설립 목적, 주소지, 내규, 발행 주식 수, 자본금, 유로화로 계산된 명목상 주식 가치, 주식 종류, 주식 양도 등에 대한 규정
 - B.V. 설립에는(i) 이사진의 허가 또는(ii)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는 규정이 없이는 주식의 양도를 금하는 조항이 요구된다. 주주총회 규칙, 주주 의결권, 운영, 해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 만약 운영 이사들이 부재 시에 다른 이사(들)의 권한과 과정, 감사에 대한 조항, 재무제표, 회계 연도, 소득 분배와 손실 처리에 대한 조항, 설립자의 권리, 현금성 자본이 아닌 경우 다른 형태의 자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은행 계좌(Bank Account)
 - 설립 B.V.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유럽에 있는 어떤 은행이나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점이 있는 은행을 추천한다. 최소 자본금 18,000유로 입금이 필요하다.

3) 법인 설립 절차

- 네덜란드에서의 회사명 확인 절차
 - 설립자는 설립하려는 회사의 이름이 기존 회사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지에 대해 지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B.V.로 시작하거나 끝나야 하며 상호명이 네덜란드어일 필요는 없다.
-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 서류 준비 완료
 - B.V. 설립 시 필요한 정보 리스트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네덜란드어로 공증해야 한다
- 네덜란드 법무성에 “이의 없음 확인서(Declaration of No Objection)”발급 요청
 - 설립자들이 지난 8년간 파산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회사 설립자, 이사진, 실질적 의사 결정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가등록(B.V. i.o.)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식 절차를 밟는 데는 통상 약 2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 동의서 발급 이전이라도 법인은 잠정적으로 그 활동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상호 뒤에 표기하는 B.V. 다음에 i.o.라는 표기를 붙여야 한다(i.o.란 ‘in oprichting’의 약자로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의미). B.V. i.o.는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면 개시가 가능하다. B.V.설립 완료 전까지는 설립자와 이사가 개별적으로 B.V. i.o.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설립 전에 관련 영업 활동 및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법률 제도이다.
- 설립한 B.V.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
 - 설립 자본금: 1만 8,000유로 입금
 - 법인 자본금 보유 및 투자 내역 증명: 은행 잔고 자본금이 최소 18,000유로 이어야 한다.
- 자본금 납입 은행 증명서 발급 요청
 - 자본금 납입 후 관련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증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Deed of Incorporation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 준비 완료
 - 이의 없음 확인서(Declaration of No Objection)
 - 최종 정관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상공회의소에 법인으로 정식 등록
 - 공증된 Deed of Incorporation을 바탕으로 공증인은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공증인이 Deed of Incorporation을 날인할 날짜로부터 8일 이내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 설립 이후의 정보 갱신
 - 사업 활동 변경 부분이 있는 경우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정보 갱신이 요구된다.

4) 법인 설립 업무 처리 기간 규정

-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추가 질문 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Declaration of No Objection (이의 없음 판정서)는 수 일에서(급행) 약 10 영업일 이내에(일반) 법무부에 의해 발급된다.
-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3~5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의 없음 판정서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B.V.의 최초 자본 총액과 관련하여 은행 확인서를 획득하는 일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단기간에 입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5) 법인(B.V.) 설립의 장단점

- 장점
 - 현지 법인이 수행한 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 단점
 - 지사 설립의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든다.
 - 지사 및 법인 설립은 네덜란드에 설립할 사무실의 법적 지위이며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 할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동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할 근로자는 (1) 근로허가서(Working Permit) 취득, (2) 임시체제비자(MVV) 취득, (3) 현지 부임 후 거주 허가 증(Residence Permit) 취득 등의 3개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라. B.V.(유한책임회사) / 지점(Branch) / 대표 사무소(Rep. Office)의 차이

	B.V	지점	대표 사무소
동일체 여부	한국 모회사와 B.V.는 법적으로 별도인격체 화란법률의 적용 받음	한국 모회사와 지점은 법적으로 동일인격체 화란법률의 적용 받음	- 실제적인 사업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비영업적활동(마케팅 조사, 업무 연락)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 - 사업 활동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 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화란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통점	개방 경제 체제로 네덜란드의 회사법은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음. 네덜란드에 주재할 사람들(네덜란드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확인 규정이엄격함. 파견 직원의 근로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필요함. 직원을 채용 시에는 반드시 노동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함.		
법인 세율	과세 대상 소득에 처음 25,000까지 - 20% 과세 대상 소득에 25,000부터 60,000까지 - 23.5% 과세 대상 소득에 60,000이상 - 25.5%		해당 사항 없음.

자료: NFIA(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마. 공장 설립 가이드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내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1) 네덜란드 측 합자/합작선의 현물 출자, 2) 지방 정부로부터 유상 배정, 3) 부지 임차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한 표준 절차는 없으며, 각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 인허가 관련 사항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를 접촉, 자문을 구한다.

NFIA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

공장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등에 기초하여, 건 별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공장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중앙 정부 승인 사항 또는 지방 정부 승인 사항으로 구분되며, 특히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 평가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IA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 및 공장 신, 증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부동산 취득 시 지역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소유권, 저당권, 관련 법원 판결 등이 모두 기재된다.
- 기타 건축물 신, 증축의 경우, 관할 시청 내 (Local Counc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 증축 신청 시 지역 건축 심의 위에서는 건축 부지, 건축물의 디자인, 공해 산업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대형 건축물이나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공업 용수 허가는 관할 수로국(Water Board)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공해 사업의 경우는 공해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유럽 물류 운송의 허브 네덜란드

- 육상 운송 산업, 유럽 내 국제 화물 운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0%
-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는 매년 4 억 210 만 톤 화물 운송, 스키폴 국제공항은 유럽에서 4 번째 규모의 항공화물 허브 연간 156 만 톤 화물 처리
- 다국적 기업 유럽 지역 물류센터 70% 네덜란드에 위치
- 지리적으로 유럽의 관문에 위치, 충실한 사회 기본 인프라(도로, 전력, 통신, 금융),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풍부한 고급 인력 및 유연한 노동 시장이 이점

나. 네덜란드 물류 운송 산업 관련 주요 지표

- 전체 네덜란드 총 산업생산의 10% 차지(2008년 기준)
- 약 150 개의 물류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일반/특수 물류창고 운영 중
- 네덜란드에 투자한 외투기업 Distribution Center 의 75%가 네덜란드 물류기업에게 아웃소싱중
- 260 억 유로가 중소기업들에 의해 창출됨, 노동 인력 1 인당 노동 생산성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62,000 유로
- 네덜란드 물류 운송산업 중 3PL(제 3 자 물류) 서비스 산업 규모 약 65 억 유로(추정치)
- 주요기업으로는 Exel, Vos Logistics, Frans Maas Groep, TNT Solutions 등이 있으며, 고용 인력은 약 1 만 7,500 명
- 유럽 내 3PL 의 경우 대부분 대외 출입구(공항, 항만)와 물류 센터, 물류 센터와 제품 유통업 체 및 고객사와의 수송에 주력
- 2009 년 1 월 1 일 기준, 3PL 관련 기업은 약 23,000 개로 대부분 육상 운송 업체(Trucking, Courier)
- 3PL 기업의 8% 이상은 중소기업 이들 업체가 3PL 산업 생산 중 75% 차지
- 전체 운송 중 75%가 도로, 나머지 30%는 내륙 해운 이용, 철도 내륙 수송은 2% 내외

주요 물류 인프라 현황(2008년 기준)

도로망	134,981 km, 고속도로 3,267 km(속도 제한 120km/hour)
철도	2,797 km, 2/3 이상이 전철화
수로	6,211 km, 75% 이상 운하
항구(바다)	15, 주요 항구 포함(Rotterdam, Amsterdam, Vlissingen/Terneuzen, Moerdijk, Delfzijl)
공항	25, 4개 국제공항 포함(Schiphol, Rotterdam, Eindhoven and Maastricht)
항공운송사	70+ 유럽을 포함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항공사	28+, 주요 항공사 포함(KLM, American, Continental, Delta)
파이프라인	총 16,500 km, gas 4,348 miles, oil 366 miles, refined products 445 miles

다. 네덜란드의 산업 단지

- 네덜란드는 산업별 특색 있는 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 등이 없으며, 외국 기업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류 유통 중심일 경우 로테르담이 유리하며, 유럽 본부 성격일 경우 스키폴 공항이 있는 암스테르담이 유리하다.
- 네덜란드에는 특징적인 산업 단지는 없으나, 유럽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 단지는 Warehouse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도시 별로 조성되어 있다.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공단은 DSM(화학), Hoogeveen(철강)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그러나 DSM(DSM 화학회사 소재: 한국의 울산과 유사), Hoogeveen(Hoogeveen 제철 소재: 한국의 포항과 유사) 등도 방대한 규모의 1 개 단위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 단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 네덜란드 내에 소재한 많은 공단들(암스테르담, 림버그, 로테르담, 알미르 등 다수 지방 공 단 소재)은 대부분이 Warehouse 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공단에 소재한 기업들의 활동은 물류 혹은 부가가치 물류로 집약된다. 즉 단순 물류 유통뿐 아니 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일부 가공 단계(라벨링, 일부 조립 등 포함)를 거쳐 소 비 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을 재생산, 수출/판매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특성상 한국식 산업 단지의 개념이 네덜 란드에는 없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 중심 항만 도시인 로테르담이 잘 개발되어 있으며, 동 항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단지가 일부 집적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 기업 및 중소 기업 등이 산재해 있을 뿐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중소 규모의 산 업 클러스터가 일부 생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지 않아 산업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다.

라. 과학 단지(사이언스파크)

- 지방자치 단체별로 산업 육성 전략으로 "Science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단지 성격의 Science Park 에는 대학부설 연구소 또는 벤처 중소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의 산실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설치된 Science Park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치	설립 연도	면적(Ha)	입주 업체/기관 수	근로자 수
Nijmegen	1989	1.5	25	100
Wageningen	1989	5.5	39	400
Amsterdam	1991	20.0	20	150
Leiden	1984	30.0	25	640
Enschede	1981	18.5	106	1,115
Groningen	1988	6.0	51	460
Delft	1992	30.0	15	27

자료: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마. 지역별 투자 여건

네덜란드의 산업 단지 및 과학 단지 등을 감안한 지역별 투자 여건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로테르담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며, 셀 등 세계적 정유사 및 보팩 등 액화화학 물류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다.

2) 아인트호벤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 장비) 등 유력 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 입지로 유력하다.

3) 암스테르담

알스미어 화훼 경매장 및 스키폴 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공항 물류 서비스 및 대기업 마케팅 본부 입지로 유력하다.

4) 호린켄

다멘 조선소가 소재하여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산업 입지로 유력하며 조선 기자재 관련 전시회 등도 동 지역에서 개최된다.

7. 노무관리

가. 노사 관계

네덜란드는 노사 분류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며, 노사 분류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 분류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조합과 사측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오랜 기간 형성된 결과이다.

1) 노동조합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결성 비율은 27%에 불과한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노조원들은 네덜란드 산업노조 연맹, 크리스찬 국가노동자조합 연맹 및 중고급 근로자 협의회라고 하는 3개의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네덜란드에는 3개의 주요 사용자 단체가 있다. 대규모 산업 연합회들을 대표하는 VNO-NCW 연합회, 중소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MKB Netherlands, 농업 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는 LTO Netherlands이다.

3) 노동위원회

네덜란드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50인이 상인 기업들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3인에서 25인까지 다양하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금지되어 있다.

나. 사회보장 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은 크게 대상 집단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는데, 국민보험 제도(모든 거주자)와 사회보장 제도(모든 근로자)이다.

국민보험 제도는 모든 거주자가 노령,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자녀 보호와 양육, 특별한 의료비 등으로 인한 금융상의 경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 실업, 장기 근로 불가 및 진료로 인한 금융상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의료비, 질병 및 근로 불가능 수당, 실업 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보장 분담금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지만 근로자가 일부 부담 하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강제적인 분담금도 있다. 사용자 분담금을 피보험 임금의 비율로 표시하면, 불구 수당 7.96%, 실업 수당(WW) 4.45%, 의무건강보험법(ZFW) 6.25% 등이 있으며, 모든 분담금의 경우 연간 지급할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다. 노동 법규

네덜란드에서 근로자들의 이익은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규에는 근로 시간, 최저 임금, 공휴일 수, 공휴일 수당, 안전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정 이외에도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 근로 합의서도 있다.

1) 근로 시간법

근로 시간법은 산업계와 정부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단일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준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여성들을 위한 임신 중과 임신 직후 근로 시간 변경 허용, 어린이 근로 금지 및 예외 규정, 16~17세 청소년의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 근로 시간에 대한 기록 유지 규정, 근로자들에게 근로 형태 변경을 통지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급 직원과 관리 직원에 대한 근로 시간법 적용 및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예외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관례 이다. 이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봉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고용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 임금과 공휴일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규 근무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상근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지직원 연간 최소 휴가 일수는 주당 근무시간 x 4배로 1일 8시간 근무 시 160시간, 20일이 연간 휴가 일수가 된다. (160시간 = 8시간 x 5일 x 4배) 휴가 일수는 차년도로 이월 가능하나 5년이 지난 휴가 일수는 자동 삭제된다.

유급 공휴일은 신년 1월 1일, 부활절 월요일 3/4월(변동), 여왕생일 4월 30일, 자유의 날(5월 5일), 예수승천일 5월(변동), 화이트월요일(변동), 성탄절(12월 25일), 박싱데이 12월 26일 등이며, 법으로 명시된 다른 유급 휴가일은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행사 1~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3일, 다른 모든 가족 축일 1일 등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고용 계약 종료 시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현지 직원 병가 일수 한도와 병가 시 고용주의 비용 부담 여부

현지 직원 병가는 2년까지 인정되며 네덜란드 기업의 경우 Corporate Doctor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병가 시 해당 의사 또는 기관이 치료와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가능한 조속히 업무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건강상 문제 발생 시 공식적인 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 발생 시 2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2년이 지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 노동 사무소 등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기업들에서는 병가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해 현지 직원 병가 대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 고용 계약 및 계약의 종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고용 계약은 고용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별 고용 계약에는 법 규정이나 단체 노동 협약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직원 고용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 기간으로, 개별 계약의 기간에 관계없이 3번까지의 고용 계약은 임시 계약으로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즉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4번째 계약부터는 일종의 종신 고용으로 들어가며 이때부터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 법원 및 노동 사무소에 직원 해고를 위한 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갱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직원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은 크게 두 유형으로 직원의 근무 실적과 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영역 변경이 있다.

먼저 근무 실적과 관련하여 해고 시 퇴직금은 필요없으며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평가 시스템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문서를 축적하여 해고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 시스템과 문서에 대한 현지법 규정은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있다.

조직 변경, 사업 영역 변경에 따른 경우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 근무 연수 별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즉 5년 근무하였으면 5개월치를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고용 계약서는 확정된 일정 기간 또는 불특정 기간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으며, 확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 최대 수습 기간은 2개월이다. 동 기간 내 어느 시점에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 최장 2 개월
- 계약기간이 2 년 미만일 경우 : 최장 1 개월
- 계약기간이 2 년 이상일 경우 : 최장 2 개월

고용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채용 지정일 및 고용 개시일, 계약의 성격(상근직 또는 임시직), 수습 기간, 근무 기간, 특정 계약 기간, 직위 및 요구가 있을 경우 간략한 직무 기술 내용, 임금, 2 차 고용 기간(예: 연금 지급 계획), 해당될 경우 비경쟁 조항 및 비밀 유지 조항 등.

고용주가 피고용자와의 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종료하기 전에 노동 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유한책임 회사의 관리 책임자 해임
- 법원에 의한 고용 계약 해지
- 임시직 고용 계약 기간의 만료
-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해고될 경우
-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 고용 관계 종료
- 즉각 해고 사유(심각한 무능력, 절도 등 수용할 수 없는 행위, 총체적인 업무 태만, 합리적인 업무 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 거부)에 해당할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 질병에 걸려있을 경우. 단, 그 기간이 2년 경과하였을 경우는 예외
- 군복무 중일 때. 단, 단체 협약이나 법정 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는 예외
- 출산 8주전부터 출산후 16주까지의 임신부인 경우
- 근로자가 노동협의회 회원인 경우 등

해고시에는 반드시 notice를 해야 하며, notice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간 5년 미만 : 1개월
- 근로기간 5~10년 : 2개월
- 근로기간 10~15년 : 3개월
- 근로기간 15년 이상 : 4개월

근로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직장을 그만둘 경우, 1달의 notice 기간이 필요하다

4) 자체 평가 규정 및 인센티브 등 상여금 지급 관련

네덜란드 현지법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인센티브와 상여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급여 인상분, 1개월 상여금 등은 고용주 재량 하에 실시할 수 있다.

5) 법정 최저 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2 번씩 조정되며,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유로, 세전 임금)

연령	월간	주간
23세 이상	1,398.60	322.75
22세	1,188.80	274.35
21세	1,014.00	234.00
20세	860.15	198.50
19세	734.25	169.45
18세	636.35	146.85
17세	552.45	127.50
16세	482.50	111.35
15세	419.60	96.85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2009년 5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자료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부과되거나, 외국 법인의 네덜란드 내 상설 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네덜란드의 법인 세율은 2009년 최저기준 20%로 OECD 평균 28%, EU 평균 25%, 남미 28%, 아태 지역 29%에 비해 낮으며 2004년부터 매년 인하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설립한 외국 기업이 상기 각종 면세, 감세 제도를 활용할 경우 법인세 20%도 실제 납부 금액은 세계 최저 수준 범주에 속한다.

아울러 네덜란드 법인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 최초 과세 대상 이윤 40,000유로까지 20%, 40,001 ~ 200,000유로는 23.5%, 200,000유로 초과는 25.5%를 부과한다.

거주자인 법인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네덜란드 세금을 면제해주는 여러 규정들이 '이중 과세 방지' 관련 조세 협정, 일반 법령 및 참여 지분 면세 제도 등에 규정되어 있다.

나. 개인 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하여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소득 그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군 소득은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기초 차감액 1,972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 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1군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 규모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1단계 소득(17,579유로까지)에 대해서는 33.60%(소득세율 2.45% + 사회복지기금원천징수 31.15%, 65세 이상은 15.70%), 2단계 소득(17,580~31,589유로)에는 41.85%(소득세율 10.70% + 사회복지기금원천징수 31.15%, 65세 이상은 23.95%), 3단계 소득 (31,589~ 53,860 유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2%, 4단계 소득(53,860유로 이상)에도 나이에 관계 없이 52%의 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2군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은 2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소유한 기업지분이 전체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한정된다.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은 투자자산의 4%에 소득의 30%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주재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제- 30% 비과세 규정

네덜란드에서 인정하는 고급기술보유외국인(highly skilled migrants)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과세 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 요건을 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계약서에 30%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점을 명기하여야만 한다.

30%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30\% \times \text{Salary} / 70\%)$ 만큼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0유로인 고급기술보유외국인은 $(30\% \times 40,000 / 70\%) = 17,143$ 유로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과세표준이 되는 Gross Salary는 $(40,000 - 17,143) = 22,857$ 유로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최대세율은 약 36.4%가 되어 기존의 52%보다 최대 15.6%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단, 추후 실업급여나 각종 사회복지혜택은 과세표준인 Gross Salary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동일 소득대비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는 만큼 30%비과세 규정을 세무당국에 신고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 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 하지만 (매출 부가세), 구매 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후 해당 기업은 세무 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며,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표준 부가세율이 네덜란드는 19%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 적용된다. 2009년부터 표준부가세율이 20%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2008년 중반 3%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구매력 보존을 위해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부가 세율 이 6%로 낮은 품목의 경우는 식품, 서적과 신문, 신문광고, 의약품, 승객 운송 및 호텔 숙박업에 적용된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부가세율을 6%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0%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출입 물류가 많이 제3국에서 물품이 네덜란드 물류 창고로 입고되는 시점에서 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물류 창고에서 네덜란드 바이어에게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이 일어나며 이때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 및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덜란드는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수입 통관하는 시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고, 분기별 정산을 하여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 부가세 상계 과정은 통상 네덜란드 물류 기업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제3국의 수출업자는 네덜란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편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은행 및 보험관련 결재(transaction), 우편 서비스, 비상업용 방송, 작곡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환경세 및 기타

지하수, 상수도, 쓰레기, 연료 그리고 에너지세 등은 환경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환경세법에 규정된 것들이며, 환경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세금들이 있는데, 소비세(excise duties), 자동차세, 승용차 및 이륜구동 자동차에 대한 세금 등이 그들이다.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는 구입 및 매각 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 표준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차액의 최초 25,000유로에 대해서는 20%, 60,000유로 까지는 23.5%, 6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25.5%를 내야한다.

(자료: 네덜란드 재무부 발간 조세 안내 번역 자료(2004),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투자 환경 안내 한글자료(2007) 및 KBC 보유 자료 종합, 현지 세무 전문 변호사 상담. 2007.12)

바. 조세 우대 제도

1) 금융 소득 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투자 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 면세 혜택을 위한 요건은 5%이상의 모든 지분 참여면 되고 면세 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 기업이 네덜란드에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할 경우, 동 추사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은 면세다.

2) 원천 과세 면세 및 감세 제도(0% tax for interest & royalties from/to Netherlands)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는 원천 과세에서 제외되고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에게 지불한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 세율을 적용한다. 코카콜라, 나 이키, 이케아 등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지주 회사를 다수 설립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등 개인도 지주 회사 설립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고 있다.

3)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관계 회사 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 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하는 시스템, 해당 과세 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 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다.

4) 국제적 과세 협약 네트워크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 협약 유지 확대, 네덜란드는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60여 개국과 광범위한 과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 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과세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는 'Unilateral Decre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라는 국제 규정에 의해 이행될 수 있으며 'EC Parent-Subsidiary Directive' 규정은 EC 회원국 간의 배당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천징수 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거래 및 해외 송금

1) 개관(OVERVIEW)

네덜란드는 외환 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나 사안별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유로화가 네덜란드 공용통화로 결정된 1999년 1월1일부로 중앙 정부에 서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화 사용 국가 15개국 간의 자금 유통을 위한 절차가 더욱 간 편해졌으며 수수료 또한 저렴해졌다. (13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몰타)

유로화는 2002년 1월부터 본격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 1월까지 중앙은행에서 과거 길더(guilders)와 주화를 교환해주었다. 유로화는 2032년 1월까지 길더화로 계속 교환해 줄 예정이 나 소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상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외국 기업들 또한 네덜란드 내국 기업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EU가입국 기업의 경우 자국 기업과 반드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다. 외국 기업들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자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De Nederlandsche Bank(DNB)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서만 금액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balance-of-payments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간의 외환 송금 중 50,000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 은행 DNB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 시 이용 은행에 구비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

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 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금 세탁을 방지코자 EU 위원회에서 제정한 “자금세탁 방지조항(Directive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 (91/308/EEC)”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사이 개정된 최신 EU 규정 또한 2007년 6월 15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은 15,0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현금 송금에 적용된다.

2) 자산 처분 이익, 주식 배당 이익, 투자 금액 유입 및 상황

국내 거주 및 비거주자 모두 별도의 승인 없이 네덜란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유 주식의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이윤의 본국 송환 또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자산이나 보유 주식의 매각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세무 당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 배당 이익에 대한 송금도 제한이 없으나 다만 25%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송금 국가가 네덜란드와 조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25%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EU 가입국 간의 배당 이익은 종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다만 자국 내 비거주자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차관 중 총 금액이 4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과 상황 또한 자유로우며 이 경우 소득세도 면제된다.

나. 자금 조달

1) 개관

네덜란드는 장단기 자금 조달 금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유럽 중앙은행(The European Central Bank - ECB)은 유럽 내 경기 부양을 위해 2003년 재금융 이자율을 2%까지 하향 조정 하였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2005년 이후부터 점차 이자율을 높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5월 현재는 역대 최저인 1.75%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내에서는 내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신용경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암스테르담 주식 시장은 브뤼셀, 파리 등 주식시장과 함께 Euronext alliance를 이루고 있으며 공식 명칭 또한 Euronext Amsterdam으로 사용하고 있다.

Euronext는 2007년 NYSE Group(New York Stock Exchange)에 의해 합병되어 최초의 전세계적인 주식거래소로 발돋움했다.

2) 단기 자금 조달

네덜란드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universal)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commercial)과 투자은행(investment or merchant)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및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은 ABN-AMRO,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up(ING), Rabobank Nederland이다.

ABN-AMRO와 ING는 유럽 내 은행들 중에서도 거대 은행군에 속하는데 Rabobank는 유럽 내 탑30 은행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 내 모기지(mortgage)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ABN-AMRO는 2008년 초 Bank of Scotland, Fortis Bank, Santander 은행의 컨소시엄에 인수되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한 축인 Fortis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국유화되었고, 이에 따라 ABN-AMRO역시 기술적으로는 현재는 국유화된 상황이다.

또 다른 유니버설 은행인 ING또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2008년 하반기 100억 유로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이나, Fortis처럼 국유화될 정도는 아니다.

단기 금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당좌대월(overdraft)”이며 매년 은행과 기업고객 간 당좌 대월 한도를 조정한다. 이자율은 각 은행별 최저 우대 금리와 연계되어 있거나 유럽 은행 간 조달 금리(Euribor) 혹은 유럽 중앙은행의 각 은행에 대한 자금 대출 금리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단기 조달 금융을 위한 증권 상품은 상품 재고(inventories), 화물 보관증(warehouse receipts), 보증(guarantees) 또는 모기지(mortgages)의 신탁도 양도도 포함되며 주요 고객에 포함되지 않는 특히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은 우대 고객에 비해 높은 이자율과 낮은 신용 한도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의 은행 시스템은 국제적인 자금 운영 및 무역 금융 활동을 위한 고객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특히 1차 상품을 위한 유럽 내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이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 때문에 단기 자금 제공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ING 와 Fortis 은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 기업어음(CP)등을 자주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 상품들은 유로권역(euro-zone)내 금융 시장에서 Euribor 금리에 연동되어 거래된다.

팩토링(Factoring)도 네덜란드 내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ING Commercial Finance社가 업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의 GE captial과 ING그룹의 조인트 벤처였던 NMB Heller社의 네덜란드 내 사업을 2005년 100% 인수함에 따라 탄생된 기업이다. ING Commercial Finance社외에는 Rabobank Nederland社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e Lage Landen Factors社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 중장기 자금 조달

중장기 자금은 네덜란드 내 주요 유니버설 은행과 유로권역 내 여타 은행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다. 모기지 은행과 모든 상업 은행들은 산업 및 상업용 건물 건축을 위한 장기 모지론(Mortgage loan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상품들의 이자율은 초기에 확정되지만 종종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여 자금 이용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편의성을 도모해 주고 있다.

은행들은 다양한 담보에 의해 보장되는 장기 신용 상품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신용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가 반영된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이자율

(단위: %, 기간평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Q
One-month	2.08	2.14	2.94	4.08	4.28	0.94
Three-month	2.11	2.18	3.08	4.28	4.64	1.31
Six-month	2.15	2.23	3.23	4.35	4.73	1.51
Twelve-month	2.27	2.33	3.44	4.45	4.83	1.67
Three-month loans to local government	2.07	2.14	3.04	4.24	4.60	1.27
Three-month euro-dollar deposits	1.55	3.50	5.13	5.24	3.10	1.03
Three-month euro-yen deposits	-0.08	-0.02	0.24	0.73	1.00	0.49
Euro area 10-year	4.14	3.44	3.86	4.33	4.37	4.19
United States 10-year	4.26	4.29	4.79	4.62	3.64	3.30
Japan 10-year	1.49	1.37	1.74	1.67	1.48	1.44

자료: 네덜란드 중앙은행(2009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중장기 자금의 주요 공급원은 NIBC로 동 기관은 2차 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설립된 공공은행으로 2007년 8월 아이슬란드계 은행인 Kaupthing에 매각되었으며 대형 기업과 공공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NIBC는 시중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50% 정도를 대출해 준다. 한편 NIBC로부터 2004년에 분리된 민간 회사인 Alpinvest Partners社도 네덜란드 내 주요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은행, 보험사, 기업연금 펀드와의 조인트 벤처의 한 축으로서 NIBC는 대기업들이 위험은 높지만 전망이 밝은 합병, 인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자체도 건실하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이 있으며 유능한 경영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 기업이 NIBC외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 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신용 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형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Besluit Borgstelling MKB-kredieten—BBMKB) 신규 창업 및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최대 6년간 100만 유로까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6년에 동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2011년까지 7억 6,500만 유로로 증액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유사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에 시작된 Uitdagingskrediet이 있으며 동 서비스는 자금 조달 시장 접근이 어렵고 다소 실패 위험이 높은 기술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무이자로 100만 유로까지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동 서비스는 2008년 “Innovation Credit”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예산도 2,500만 유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위해서는 종업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 소기업이어야 하며 농업이나 금융 서비스 분야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근검 절약의 실용적 소비 패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물에 젖은 휴지를 말리는 곳이 나타나면 그곳이 네덜란드이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 국민은 대개 검소하다. 이 같은 국민성을 반영하여, 제품 구매 시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저렴하고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2) Very Slow Adopter

네덜란드 인들은 기술이나 제품 트렌드에 다소 둔감한 편으로 필요치 않을 경우 사용 중인 제품을 단지 유행이나 새로운 기능 때문에 바꾸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 중인 핸드폰이 다소 구형이고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해서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며 필요 시 각 통신사에서 회선 가입과 함께 제공하는 Bundle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필요할 때는 지갑을 연다

네덜란드 가정에는 통상 1인당 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한대는 출퇴근 용으로 매우 저렴하거나 낡을 때까지 낡아서 분실이나 고장이 나더라도 금전적 손실이 적은 자전거이고 하나는 주말 가족 나들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자전거이다. 출퇴근용 자전거는 대개 중고일 경우 50~100유로, 새 자전거일 경우 100~300유로 정도이다. 그러나 주말용 자전거의 경우 GAZELLE, GIANT, BATABUS 등 현지 인기 브랜드 자전거가 통상 500~2,000유로를 호 가하는 고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운동용 사이클의 경우 최소 700~3,000 유로 선까지 다양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

평소 자린고비로 유명한 네덜란드 인들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의 월 평균 급여의 상당 부분을 선뜻 할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영향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 성으로 인해 TV 시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고가의 LCD TV 구매도 늘고 있는 등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의 제품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다 취향 소비 패턴

네덜란드는 전국민의 1/5이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지 않은 비자 국민이며 1/5 중에서도 네덜란드 국적이 없는 순수 외국인만 70만이 넘는 다 인종 국가다. 따라서 각각 선호하는 제품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특정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의류 등 트렌디 소비재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 구매력이 탄탄한 실버(Silver)층

네덜란드인들은 통상 65세 전후에 정년을 맞게 되며 이후에는 정부 연금과 개인 연금 그 외 투자 소득으로 생활하게 된다. 20세 전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노년층은 부부 단위로 생활하거나 독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노인들은 필요한 부분 이상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고 있게 된다. 의료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노년층은 의료 등 주로 생활 소비재나 가전 제품 등을 구입하는 등 소득을 사용하게 되므로 여타 소비자 층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경제 특성

- 유럽의 Little Giant
 - 협소한 국토 면적: EU 15 개국 중 12 위, 한반도의 1/5 수준
 - 무역 대국 (2008 년 기준 수출 5,321 억 유로, 수입 4,758 억 유로)
 - 초대형 다국적 기업 다수 소재: 세계 500 대 기업 중 16 개 기업 보유(유럽 500 대 기업 중 33 개 보유)
- 유럽의 Gate
 - 유럽 수입 물량의 60%, 수출 물량의 30% 취급
 - 세계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 항 보유(유럽 물동량의 40% 점유)
 - 유럽 시장의 Test Market: 시장 자유화로 국내외 기업 간 치열한 경쟁
- 유럽의 Garden
 - 연간 화훼류 수출 45 억 달러(세계 시장의 60% 공급)
 - 첨단 기술 개발로 화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성공
 - 평평한 국토 보유로 국토 개발 활용률 100%에 육박
- 유럽의 경제 발전 Model
 - Polder Model: 노-사-정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사례
 -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척박한 국토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류, 화훼, 금융 등 틈새 산업을 육성, 경제 성장 지속

다. 한국 상품 인지도 및 유망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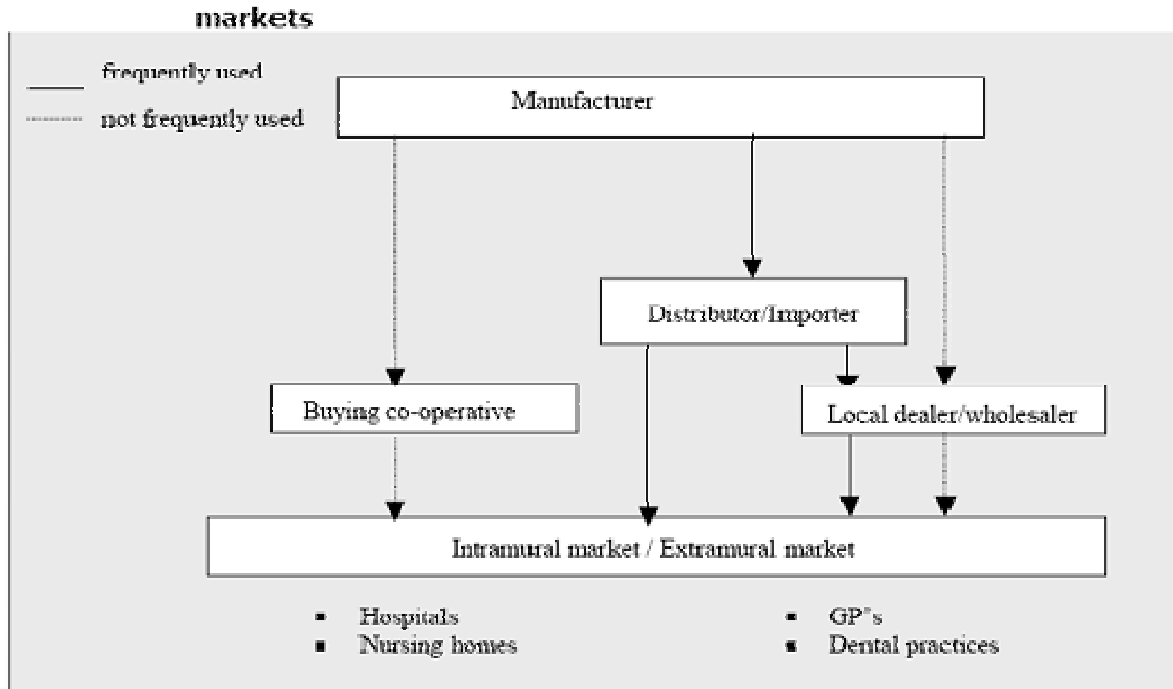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한국 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해서 는 상대적으로는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산 및 유럽산에 비해 인지도 가 낮은 게 흠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제값을 받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네덜란드에서 호평받고 있는 제품들은 삼성, LG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전 제품군과 SUV를 중 심으로 하는 승용차, 건설 중장비 등이 있다. 최근 SET TOP박스 등 IT기술력을 앞세운 제품들 이 네덜란드에 공급되고 있고 일부 제품들은 KPN, TELE 2 등 현지 유력 케이블, 인터넷 공급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라. 유통 채널

네덜란드 내에서 유통 채널의 경우 크게 제조 기업이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 기업-도매상-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간접 판매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 직접 판매 방식은 제조 기업이 최종 수요자에게 대규모로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방식임.



- 간접 판매 방식은 현재 네덜란드 소비재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식임. 수입상과 디스트리뷰터를 경유한 판매 방식으로서 자금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가 취약한 대부분의 제 3 국 제조업체가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
- 네덜란드 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회 또는 상담회 등에 참가하여 네트워크를 꾸준히 발굴, 유지해 가는 것이 추천할 수 있는 방안임.

2. 물가정보

(1 EUR= 1960.81 KRW = 1.4357 USD /2009년 12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VND)
식품류	쌀 1kg	1.44
	계란 12개	1.82
	쇠고기 등심 1kg	7.99
	돼지고기 등심 1kg	6.69
	우유 500ml	0.51
	식용유 1L	1.99

	생수 1L	0.46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4.09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6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25
	김치찌개 1인분	2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7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4.8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0,500.00
	무연휘발유 1L	1.34
	자동차 등록비	5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95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3.4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0.55
	시내버스 기본요금	0.75
	택시 기본요금	7.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1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5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2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5.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3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3,935.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9,23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20,03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95.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62.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1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8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4,5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출산휴가일수	16주=112일
	연간 국경일수	10일
	주5일 근무 여부	(O)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네덜란드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 리스트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협회나 기관에서는 DB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의 홈페이지에도 회원사 연락처나 제품, 담당자 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시회일 경우 주최측에 업체 리스트를 요구하면, 유로 디렉터리로 판매하거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힐 경우에 한해 일부 무상으로 주는 수도 있다.

오히려 산업별 전문 잡지에 게재되는 업체 광고나 소개를 참고할 경우, 종종 적격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덜란드 잡지들은 네덜란드어로 제작되므로 네덜란드어를 모를 경우 인쇄 매체를 이용한 발굴도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유력한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은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유트레히트, 마스트리트에서 열리는 전시회들을 잘 활용할 경우, 전시업체 또는 현지 부대 행사 참석 업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주요 네덜란드 전시장
 - Rai 전시장: www.rai.nl
 - Utrecht jaarbeurs 전시장: www.jaarbeursutrecht.com
 - Rotterdam Ahoy 전시장: www.ahoy.nl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KBC 유료 조사 대행 요청이 여의치 못하는 기업들은 네덜란드 바이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어 정보 관련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abcdirect.nl/e1/>으로 약 12만 개사의 기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 사이트는 네덜란드 기업 디렉터리 중 유일하게 영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업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간단한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정보를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온라인 업체 검색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kcompass.nl
- www.hoovers.com
- www.europages.nl
- www.kellysearch.nl
- www.kvk.nl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관행

1) 대금 결제는 신용 거래 방식 선호

네덜란드의 경우 점차적으로 대금 결제 방식에 있어 기존 L/C거래에서 신용 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정도의 외상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TT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은행에 현금을 예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초기 계약의 경우 상당수가 외상 거래 또는 TT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TT거래나 유산스(USANCE) 거래 시는 수출자나 수입자 중 어느 일방이 전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초기 거래 시 선뜻 이런 결제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KOTRA에서는 초기 거래의 양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로 무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KOPS” 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KOP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수출자는 수출 보험, 바이어는 자동적으로 한 달간의 USANCE 및 지급 보증 보험에 따른 지급 대금 구상권을 갖게 되어 초기 거래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KOPS 시스템은 http://etrade.buykorea.org/KOPS/kops_kor.jsp?pgNo=2001 사이트에서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독점 에이전트 요구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과 전통적인 상인 정신의 기질로 인해 항상 비즈니스 활동 무대가 네덜란드에 한정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네덜란드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 시 유럽 전역 또는 베네룩스 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네덜란드를 이용한 아프리카, 중동인들의 무역 사기 주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들의 무역 사기는 이미 알려진 바 오래이다. 이들 사기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이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선진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 및 금융 부분에서 개방화된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활용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단의 수법은 대개 비슷하다. 자국의 은행이 한국의 은행 또는 서방 은행과 코레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을 네덜란드에 있는 자금 보관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 (Security Company 라고 함)에 맡겨 놓을 테니 직접 찾아가거나 중개 회사에 송금을 요청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이 현금 수송 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개 회사에서 자금 송금 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기단들의 경우 대부분 허위 주소와 06(국가 코드 포함 시 31-6-고유번호)으로 시작 되는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상기와 같은 유형의 제의가 왔을 경우에는 암스테르담 KBC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 비즈니스 상담에서 성공하기

1) 상담 전 준비 사항

네덜란드 상인은 협상에 대단히 능하며, 사소한 일에도 냉정한 편이다. 또한 교육 수준과 사회 적 지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은 거래자 간의 신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규 판로 개척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번 거래를 맺으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보유해야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숙지하기 때문에 상담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상대방의 경우도 해당 제품에 대해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철저한 지식이 요구된다.

□ 첫 접촉은 우편을 이용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편을 통한 정보를 선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이어 정보에 대한 공개가 여타 국가보다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의 수출상들로부터 수많은 거래제의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팩스나 이메일보 다는 우편을 통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선호한다.

따라서 우편을 통해 제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번째 우편에는 제품 카탈로그, 회사 소개서, 제품 설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KBC를 통해 바이어 리스트를 입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암스테르담 KBC에 제공하는 바이어리스트 경우, 개별적인 전화 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수입상들만을 엄선하 고는 있으나 이들 바이어 역시 당장의 구매 의사보다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선 희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세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 성사를 위한 지름길로 인식된다.

□ 영문 카탈로그는 필수

대부분의 해외 마케팅이 그러하듯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는 네덜란드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된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 80%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별도의 네덜란드어로 된 자료가 필수적이 지 않기 때문에 영문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가끔 국문 카탈로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어들은 쉽게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문 카탈로그 제작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덜란드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에 대해 기업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 시 가능하다면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이 신뢰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하며 내용 중 오, 탈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업 소개서(Company Profile)도 중요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납기 준수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출 업체의 신뢰도는 공급선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소개서는 바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물이다.

기업 소개서에는 일반적 사항 외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 시설 등의 사진이 들어가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명 특허이나 신제품 생산 능력 등 자기 회사 고유의 장점을 부각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회사 소개서 제작이 어렵다면, 회사 역사, 직원 수 등 기초 정보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 카탈로그와 같이 제작되어도 무방하다.

□ 첫 접촉 시 Price List 송부는 금물

네덜란드 바이어들과 접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접촉 시 가격 리스트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공급업체가 대뜸 가격 리스트를 보내왔을 경우, 대부분의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모든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쯤으로 여기며, 실거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 리스트를 배포한 업체들은 네덜란드 바이어의 혹독한 가격 할인 요구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샘플 역시 첫 번째 메일링에 동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볼펜, 열쇠고리 등 저가품이 아니 라면 좀 더 상담이 진행된 다음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역원을 활용도 고려

네덜란드인들의 영어 실력은 비영어권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협 상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통역 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어-네덜란드어-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원의 경우 1일 기준(오전 9시-오후 5시) 약 250유로 수준이며 KBC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2) 상담 시 비즈니스 매너 및 유의 사항

□ 방문은 항상 사전 약속을 통해

바이어들과 접촉이 잘 이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바이어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네덜란드 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가장 좋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항상 바이어와의 사전 약속이 필수적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좀처럼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만나게 되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 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 선물 및 복장도 중요

네덜란드인들 역시 비즈니스에 있어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 뇌물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 한 가벼운 것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적인 선물이라면 오랫동안 이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갈 경우 전통 찻잔, 자개 보석함 등이 좋으며 한국에서 미처 준비를 못 해 현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와인이나 초콜릿 등이 효과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담 중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감사 편지 와 함께 선물을 송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 시 복장 역시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의 경우 정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릴 수 있다.

□ 적절한 대화 주제 선택

네덜란드인은 사업상의 성공을 즐기며, 보통 사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외에 편안한 대화 주제로는 축구와 네덜란드 문화, 가정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는 다소 심각해질 수가 있으므로 가벼운 대화 시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우선

네덜란드 시장은 유럽의 테스트 마켓이다. 소비자들은 검소할 뿐 아니라 상인 기질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격 조건을 거래 시 가장 고려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성공의 제1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 문화적 금기 사항

네덜란드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도 좋다고 하지 않는 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네덜란드인은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는 편이므로 저녁 식사를 겸한 상담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배우자나 이성 친구, 또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한 먼저 꺼내는 것은 실례이다. 또한 여성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실례이니 참고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류 교역을 근간으로 경제를 끌어오고 있는 국가로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규제가 적은 통관 제도와 무역 관련 규정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특별한 비관세 장벽이나 차별 정책은 없으며 투자 또한 어떤 외국 기업이더라도 네덜란드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등, 역시 별다른 제제나 특별 조항이 없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지역 중 하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로알소브린 성공 사례

라미네이터 및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제조 수출하는 (주)로알소브린(사장: 임타관)이 KOTRA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힘입어 유럽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로테르담 공동 물류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주)로알소브린은 소량 주문 수주 및 납기 단축이 가능해지면서 바이어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 수출 증대를 실현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바이어에 대한 수출이 미미했는데 공동 물류센터 이용으로 2006년에 19만 2,000유로 그리고 2007년에는 15만 9,000유로를 수출했다”고 (주) 로알소브린의 최인범 부장은 밝혔다.

KOTRA 암스테르담 KBC은 (주)로알소브린이 독일법인(창고 포함)을 폐쇄하고 네덜란드로 이전하는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해 왔는데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외에도 현지 바이어 발굴 서비스, 네덜란드 법인 설립 지원 서비스, 마이오피스 제공 등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제반 마케팅을 지원했다.

“독일에서 법인(창고 포함)을 운영하다 문화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됐는데, KOTRA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출이 늘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 로알소브린 관계자는 밝혔다. “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법인에는 4명(본사 파견 2명, 현지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 물류 센터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준호 네덜란드 법인장은 밝혔다.

또한, 최근 (주)로알소브린은 세계적인 사무용품 체인업체인 Office Depot의 유럽 본부와 100만 유로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센터에 우리 제품이 이미 있고 주문 후 3일 이내에 유럽 전역에 배송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책임자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마 재고가 유럽 땅에 있다는 것이 바이어에게 큰 신뢰를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최부장은 말했다.

중소업체인 (주)로알소브린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체인점(Mass Merchandiser)에 납품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물류 창고를 설립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 수출이 배가되어 판매 법인도 설립하고, 나아가 자가 물류 창고도 갖게 되는 유럽 시장 진출 패턴은 (주)파켄오피씨, (주)디어포스 등 몇몇 국내 업체에서도 볼 수 있다.

KOTRA 암스테르담 KBC는 2004년 4월부터 로테르담 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럽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왔고, 현재는 2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유럽에 수출된 금액이 1,5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최근에는 법인/지사 설립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주) 에이팩 성공 사례

통상 유럽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재고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공급자(수출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에 수출을 시작하거나 물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직수출에 따른 높은 물류비와 신속한 딜리버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주)에이팩은 컴퓨터 부품(CPU Cooling Fan)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인데, 자사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으나 제품 특성상 거래처는 소량, 신속 납품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상담하는 바이어마다 유럽에 물류센터 구축 여부를 문의하였고 아직도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먼저 물류센터를 구축한 뒤 상담을 계속 하자고 하여 상담에 어려움을 겪곤 하였다.

(주)에이팩은 이러한 거래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공 운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운송비가 해상 운송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결국 단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가에 매우 민감한 자사 제품 특성상 항공 운송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자니 바이어의 신속 납품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주)에이팩은 유럽시장 진출이 막혔다시피 했고 유럽 수출 담당자인 최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던 중 최과장은 (주)에이팩은 KOTRA 암스테르담 KBC에서 운영하는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알게 됐고, 드디어 2006년 10월 19일 (주)에이팩의 제품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입고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센터의 선 구축을 요구하며 주문을 주저하던 바이어들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에 제품이 입고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고 예정 일자에 맞춰 주문을 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첫 선적분이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바이어의 추가 주문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이어에 대한 고객만족 차원에서 항공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 수출이 불가능 했던 (주)에이팩이 2006년 하반기에만 10만 유로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양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유럽 수출이 200만 유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에이팩은 전망했다.

KOTRA 암스테르담 KBC(관장 윤재천)는 지난 2004년 4월에 로테르담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25개사가 이용 중에 있다. 또한, 2006년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유럽 수출이 1,5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KOTRA 암스테르담 KBC는 밝혔다.

다. 자동차 부품 진출 성공 사례

성우오토모티브는 국내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8년 4월 29~30일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수송기계 부품 산업전에 참가, 암스테르담 KBC에서 유치한

네덜란드 기업 네드카(Netherlands car B.V.)와 최초 면담한 이 후 KBC의 꾸준한 지원과 자사의 노력으로 드디어 9월 알로이힐 연간 공급 체결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니치마켓인 네덜란드 자동차 생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은 물론, 향후 동사를 발판으로 유럽 애프터마켓 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네드카가 성우 제품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생산 중인 미쓰비시 차량 외에 타 브랜드 차종도 생산할 예정이어서 점진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네드카는 일본 미쓰비시 社の Colt, Outlander 모델을 생산,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승용차 전문 제조기업이며 네덜란드에는 네드카 외에도 트럭 전문 기업 DAF, 버스 전문 기업 VDL 그룹 등 3개 자동차 제조 업체가 있다.

네드카는 2007년 이전까지 주로 일본 및 유럽 내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CKD 방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차량을 생산, 유럽 시장에 판매하여 왔었으나 최근 2~3년 간의 경기 침체로 신차 판매가 감소하자 공장 폐쇄 위기까지 몰리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됐었다.

네드카 측에서는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근 3년 간 종업원 수를 6,000명에서 2,000명 이하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경영 구조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2007년에는 연산 규모가 7만 대까지 떨어지는 등 외형적으로는 대폭 회사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어느 정도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소 현지 기업 및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암스테르담 KBC에서는 네드카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2007년 초반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인원 감축 같은 일시적인 조치 외에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네드카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 동사를 직접 방문 적극적인 수출 상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한국산 부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던 네드카도 KBC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 2007년 6월 KOTRA 주도로 개최된 국제 수송 기계 부품 산업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한국산 부품이 자사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회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KBC에 자동차 부품 업체 수배를 의뢰하는 등 한국산 부품 구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KBC에서는 2008년 4월에도 창원에서 개최된 2008 국제 수송 기계 부품 산업전에 네드카를 다시 유치, 국내 기업과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우성오토모티브는 동 행사를 통해 네드카와 최초 면담 이후 네드카와의 지난한 협상 끝에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KBC는 네드카 구매 담당 부서의 책임자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우성오토모티브와의 협상 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수행하였다.

7. 이주정책 가이드

네덜란드 이민법은 관련 규정 변경이 다소 잦은 편이며 아래 내용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거주지역(Amsterdam, Rotterdam 등)과 입국자의 신분에 따라 신청 순서나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입국수속을 마친 후 거주허가 접수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지 입국 후에는 이삿짐 통관, 주택입주, 자녀 학교입학, 전화 및 자동차 등록 등은 거주허가증 수령 전에도 시청에서 발급한 거주자 확인증(Uittekst) 또는 주택임대/구입 계약서, 은행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단 운전면허 갱신은 거주허가증을 받은 후에만 국제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 시청이나 이민성, 주한 대사관에 문의하더라도 정확한 안내를 받기 어려우며 거주지역 별로 적용순서나 발급 시일 등이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일단 아래 3가지 상황을 근간으로 대략적인 순서를 인지하고 실제 적용은 각 시청 및 상황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

- 관련 정부기관
 - 노동부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워킹퍼밋(Working Permit) 발급
 - 이민성 IND(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거주비자 발급
 - 주거지 시청 (Gemeente)

가. 현주 거주비자 취득 절차

1) 시청을 통해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성(IND)에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청을 통할 경우 한곳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mstelveen시가 대표적)

워킹퍼밋 신청 →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 CWI워킹퍼밋 발급 → 주택계약 → 거주지 시청 방문(전입신고+거주비자신청) → 시청에서 전입신고 진행서류 발급(우편) → 시청에서 거주비자 진행증명서류 발급(우편) → 시청 거주확인완료 → IND 결핵검사 → SOFI NUMBER 발급 → IND 방문 인터뷰 → 거주비자 발급 통보 및 수령

2) 시청과 IND를 별도로 이용하여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워킹퍼밋 신청 → CWI(Centrum voor Werk en Inkomen) → CWI워킹퍼밋 발급 → 주택계약 → IND에 거주비자 직접 신청(우편 또는 방문) → IND 결핵검사 → SOFI NUMBER 발급 → IND 방문 인터뷰 → 거주비자 발급 통보 및 수령

- 이 경우 전입신고, 거주자 확인증(Uittekst)등을 위해 시청을 별도 방문해야 한다.

3) EXPAT CENTER(knowledge migrants만 해당)

Amsterdam시 WTC빌딩 F동 1층 로비에 위치한 knowledge migrants(아래 설명 참조)을 위한 ONE-STOP서비스 센터로 2008년 5월부터 Amsterdam시와 Amstelveen시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시험 운영 중이다. 별도로 시청이나 IND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곳에서 시청 전입 및 거주비자의 신청, 접수, 수령까지 일괄 처리된다.

- 주소 및 연락처
 - Add: World Trade Center Amsterdam, F-Tower Strawinskylaan 39 (second floor), 1077 XW Amsterdam
 - Mail: welcome@expatcenter.iamsterdam.com, <http://www.expatlloket.nl>
 - Telephone: +31 (0)20-2547999

- Knowledge Migrant 시스템
 - ‘Knowledge Migrant’ 시스템은 네덜란드가 외국의 고급이민자 유입촉진을 위해 2005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고소득자 및 지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거주비자 발급 전 진행기간 중에도 현지 정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이민자나 주재원의 경우 신청기간 중에는 혜택도 적고 가격도 비싼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가 거주비자가 나온 후에야 정규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 아울러, 일반인들이 1~3 년 사의의 거주허가증을 받게 되는 데 반해 통상 5 년간의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는 혜택이 있다. 동 제도 수혜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격요건은 연봉 4 만 5,000 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나이가 30 세 미만인 자로 연봉 3 만 2,600 유로 이상인 대학원졸업생 또는 대학교수 등 지식근로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
 - 수속절차는, 먼저 지식근로자를 초청할 네덜란드 진출기업은 현지 이민성(IND)에 ‘지식 근로자 추천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 기업들도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입국대상 지식근로자용 입국신청서를 교부 받아 관련된 서류 일 체를 IND 에 제출하면 된다. 최소 1 개월 이상 소요되며, 거절되는 수도 있다.
 - 지식근로자로 승인이 되면, 이후 입국하는 방법과 절차는 일반 이민자 입국수속절차와 동일하다.

4) 신청절차 세부설명

- 2007 년 6 월 1 일부로 기존 현지 발령 또는 이주 확정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했던 MVV(임시체제비자의 일종)를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국민에 대해 면제 조치 를 취함으로써 네덜란드 입국수속이 수월해졌다.
- 이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투자 및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3 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3 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현지에서 근로허가서 (Working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근로허가서 발급은 노동청 양식 AV320 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소득증명, 파견자와 본사간 근로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여권사본,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증 초본, 일정기간 경과 후 귀국할 것이라는 보증서 등의 서류가 요구되며, 동 과정 또한 지사 또는 법인설립을 대행한 네덜란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 3 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네덜란드를 입국한 외국인인 규정상 네덜란드 도착 후 5 일 이내에 입국한 가족 동반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시청직원 파견근무)에 입국신고를 해야 하여야 하나 실제 시청 또는 IND 에 거주비자 신청으로 대신하면 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이후 IND(네덜란드 이민성) 인터뷰, 관할시청 거주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여권사진 2 매, 보험증, 고용계약서 집 계약서 등(단 가족 동반 시 결혼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 확인증이 추가 필요)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B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신청금(일종의 비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약간의 요율 변경이 있음)

- 신분증(거주허가증) 유효 기간은 1 년 또는 3 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는 데, 같은 회사의 주재원 또는 동일 주재원의 가족일 경우라도 같은 유효기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유효 기간은 IND 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갱신 시에는 사진 2 매와 구 신분증을 IND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는 결핵검사 대상국으로써 거주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IND 에서 지정하는 소재지 보건소에서 폐결핵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자녀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가지고 와야 하며, 예방접종 확인이 안 될 경우 다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 네덜란드의 이민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상당한 인 내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나. 이삿짐 통관

-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자동차는 6 개월 이상 소유한 것으로서 반입할 때 자동차 소유기간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관세청에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이사화물 통관 전문 기업을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된다. 요즘 들어 주재원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최근 구입한 고가품의 경우 과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삿짐 구입 발송 시에는 과 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던 물건으로 판정되도록 포장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관세면세신청서는 신청서가 있을 때에 조건부로 효력을 발생하며,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소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사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 면세 신청 시 유의사항 (전문통관업체가 대행하므로 참고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 최종 이사물품 통관 예정일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통관예정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 네덜란드에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Enig Document" 신청서를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이사 물품은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사 물품은 관세가 면제 된다는 이유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양도 또는 판매 될 수 없으며 이는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12 개월 이내에만 적용된다. 만약, 통관날짜를 기준으로 물품을 판매, 양도 또는 대 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해당 관세청에 서신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정의 세금이 부과 된다.
- 일반적인 이사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시에는 일반 관세법이 적용된다. 즉, 술, 담배, 등 네덜란드의 관세청에서 규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 이삿짐에 신규로 구입한 전자제품, 골프용품 등 고가의 신규구입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 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삿짐 발송 시 최근 통관동향(전수조사 또는 랜덤조사 여부 등)을 이미 정착한 주재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다. 주택 구하기

-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또는 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전통가옥 (Rijthuis: row house)로서 한국의 연립주택과 유사하나 집 앞 또는 뒤에 작은 정원을 갖추고 있음)과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이다.
- 전통가옥의 경우 대개 2-3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 층은 거실 및 식당으로 2 층 또는 3 층은 침실 및 다락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것이 특색이다.
-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한국 주재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 (암스테르담 인근에 위치)의 경우 1,500~3,000 유로/월 수준이며, 로테르담의 경우 이보다 약 20% 정도 낮다. 아파트는 방 2~3 개(창고별도)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가격은 대략 1,500~ 2,000 유로/월 수준이다(세미 퍼니쉬드 기준, 가구가 전무할 경우 통상 500 유로 이상 싸 진다)
- 주택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가격과 조건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업체 수수료는 대개 1 개월분 임차료와 VAT(19%) 기타 행정 수수료 등이며, 계약 시 임대인에게 임차료 1 개월 또는 2 개월에 해당하는 예치금(퇴거시 주택 원상 복구 여부 검사 후 반환)과 1 개월 분 임차료를 선불하여야 하여야 한다.
- 임차료 인상은 연 1 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요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대략 1~2% 수준), 임대료에는 편의시설 사용료(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사소한 보수사항은 임차인 책임 사항이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본사 귀임, 전근발령에 대비, 계약서 기본약관에 "외교관 조항(Diplomat Clause)" 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통상 해지일 기준 2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내부시설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은 대략 다음의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 Fully Furnished: TV, 냉장고, 침대, 식탁 등을 비롯, 입주자가 요리, 식사, 세면 등을 위한 시설이 일체 갖추어진 집의 형태
 - Semi-Furnished: 바닥재, 커튼, 램프 및 부엌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집의 형태
 - Unfurnished: 내부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의 형태(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내부 페인트칠과 벽지공사, 전구설치 등 일체를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
- 참고사항(인터넷 주택 검색 사이트)
 - 주택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부동산사무소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사이트에 매물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www.marktplaats.nl
 - www.renthouse.nl
 - www.amsterdamhousing.nl
 - 네덜란드 주택매매 사이트를 통한 주택을 구입할 때, Huur 과 Huren 은 임대를 의미하고, Verkoop 과 Verkopen 은 매매를 의미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라. 은행계좌 개설

- 은행계좌 개설 시, 사회보장번호인 public service number(BSN)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주택 임대 또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거주지나 사무실로 PIN 카드(직불카드)와 인터넷 뱅킹용 암호 대조 기(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기계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및 자금 거래 시 사용)를 우편으로 송부해 주며 PIN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 점포나 해당은행 ATM (현금인출기)기에서 활성화(Activate)시키면 된다. 신용카드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은행 거래내역이 쌓이면 별도 신청하면 된다.
- 참고로, 네덜란드는 현금 못지 않게 PIN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MAESTRO 가맹이 되어있는 유럽지역 타국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보다는 비즈니스, 인터넷 물품구입 및 각종 예약시 사용하게 되며 네덜란드에서는 PIN 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할 것이 권장된다.
- 현지 은행에서 현지 유로화 및 달러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암스테르담에는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있다. Checking Account(수시로 입금, 출금 가능) 및 Savings Account(일정금액 이상 예치 시) 모두 가능하다. 계좌개설 약 1 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카드(일종의 직불 카드)를 교부 받게 된다. 별도의 은행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bank statement 가 예금자에게 송부된다. 물품 구입 대금이나 공공 요금은 Giro Transfer Form 이나 Credit Transfer Form (Slip)을 이용, 본인 계좌에서 이체 지불한다. 인터넷 뱅킹은 보안이 잘 되어 있으므로 일반 지불 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 전화, TV, 인터넷

- 주택이 마련되면 전화, TV, 인터넷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네덜란드에는 KPN, TELE2 등 각종 통신사에서 TV, 전화, 인터넷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실제 사용시까지 통상 1~2 개월이 소요되며 직접 설치해 주지 않고 대부분 우편으로 모뎀 등을 보내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치 직 원이 나올 경우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에 따라 무상 출장서비스도 있는 경우가 있고 설치시간도 2 주 내로 신속히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업체 선정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종종 노트북 제공 등 사은품 행사도 많으나 의무 계약기간이 2 년 정도로 다소 긴 경 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핸드폰의 경우 가입 시 업체별로 다양한 모델의 핸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바. 자동차 및 비품구입

- 자동차는 거주지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확인증(Uittreksel)만 있으면 거주비자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절차도 간단해서 신차의 경우는 딜러가 모두 처리해 주고 중고차의 경우는 근처 우체국에서 약 5 분 정도의 간단한 수속으로 차소유를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차량가격에 40%의 BPM (일종의 특별소비세)이 부과되므로 인근국보다 자동차를 고가에 구입해야만 한다. 특히 디젤차량에는 40% 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366 유로가 부과된다.
- 자동차구입은 주로 딜러를 통해 구입하나, 중고차도 고가이므로 여러 곳의 차량가격을 두루 검토한 후 구입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시 1년 정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기간 없이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이다.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특정 개인이 3년 정도 사용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학교, 회사, 지인 등을 통해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고차 사이트는 www.autotrack.nl 이 가장 인기가 있으며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찾아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품질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자동보다 수동이 많은 편이며 장거리 유럽여행을 위해서 크루즈 컨트롤 (Cruise)이 장착된 차량이 많다.
- 네덜란드에는 유료도로가 없는 대신 자동차세, 도로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이 자가차량 주차증을 구입하여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데, 본인차량 주차증과 방문객 차량 주차증 등 2종을 시청에 가서 구입하여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동 주차 증은 분기별로 자동 갱신 및 송부(자동갱신 시청해야 함)되며,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 번잡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 앞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구류는 통상 IKEA 에서 구입한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필수품은 Makro, Hanco, MediaMart(독일계), BCC(영국계) 등의 하이퍼마켓 또는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종류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 이기 때문이다.

사. 자녀교육

- 현지 거주자의 자녀는 조건 없이 현지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다. 현지 이민일 경우 네덜란드어로 교육하는 네덜란드 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으며 네덜란드 학교는 고등학교 까지 수업료가 면제 된다(2005년부터 16세 이상도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주재원의 경우 통상 국제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게 된다.
- 네덜란드에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많이 진출해 있어 국제학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다.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수업료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취학시킬 수 있으며 주재원의 자녀도 현지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 암스테르담의 초, 중등 과정은 브리티시와 ISA, AICS 등 인터내셔널 3개 학교가 있다.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ISA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1만 8,000 유로 이상) 부담이 될 경우 AICS 나 브리티시스쿨(연간 12,000 유로 이상)에 취학시키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수업료가 비싸지만 학교시설이 우수한 ISA(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의 경우, 입학 신청 후 T/O 사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을 때까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재원 발령과 함께 입학수속 서류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학교당국과 사전 유선접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 저학년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적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일부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다. 국제학교 입학은 통상 학부형 및

학생과의 인터뷰를 거쳐 입학 승인이 나게 된다. American School 의 학제는 통상 Kindergarten 4~ 5 세, Elementary School(Grade 1~4) 6~9 세, Middle School(Grade 5~8) 10~13 세, High School(Grade 9~12) 14~18 세로 되어 있다.

- 네덜란드에 소재한 국제학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msterdam
 - 주소: Sportlaan 45, 1185 TB Amstelveen
 - 전화: +31 20 347 1111, 팩스: +31 20 347 1222
 - 홈페이지: www.isa.nl
 - e-메일: admissions@isa.nl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Rotterdam
 - 주소: Verhulstlaan 21, 3055 WJ Rotterdam
 - 전화: +31 10 422 5351, 팩스: +31 10 422 4075
 - 홈페이지: www.aisr.nl
 - e-메일: information@aisr.nl
 - The American School of the Hague
 - 주소: Rijksstraatweg 200, 2241 BX Wassenaar
 - 전화: +31 70 512 10 60
 - 팩스: +31 70 511 24 00
 - 홈페이지: www.ash.nl/index1.html
 - e-메일: admission@ash.nl
 - The British School in the Netherlands
 - 주소: Vlaskamp 19, 2592 AA Den Haag
 - 전화: +31 70 333 8111, 팩스: +31 70 333 8100
 - 홈페이지: www.britishschool.nl
 - e-메일: info@britishschool.nl
 - The British Primary School of Amsterdam
 - 주소: Anthonie van Dijkstraat 1, 1077 ME Amsterdam
 - 전화: +31 20 679 7840, 팩스: +31 20 675 8396
 - 홈페이지: www.britams.nl
 - e-메일: info@britams.nl

아. 병원 이용

-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는 주재원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수준에 맞추어 별도의 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의료보험료는 통상 4 인 가족의 경우 월 약 300 유로가 소요 되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커버된다.
- 의료보험 가입 후 가정의를 별도로 수배하여 정해 놓아야 종합병원에서 2 차 진료 가능 하다. 단, 응급환자 발생시는 가정의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 네덜란드 의료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선지불하고, 후지원을 받게 되는데, 해당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의료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통상 3 개월 주기로 환급받는 것 이 좋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네덜란드는 북위 50-53도의 고위도에도 불구하고 북해연안에 인접해 있어 따뜻한 대서양 난류로 인해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며, 지역 간의 온도 차도 극소하여 동부와 서부 간의 연평균 기온 차는 2도 내외 안팎이다.

네덜란드의 연간 강우량은 약 760mm, 눈 내리는 날은 연평균 17일 정도이다.

네덜란드 기후의 특징적인 사항은 일년 내내 건기가 없고, 봄철을 제외하고는 다소 강수량 많은 편이며, 특히 9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18도 정도이나 아침은 선선하고 점심 때는 덥고, 저녁은 다시 선선해지는 등 일교차가 심하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8도로 온화한 편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장 복장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월별 평균 기온 및 일조 시간(과거 30년 평균)

월	평균 기온(섭씨)	일조 시간
1	2.1	44
2	2.3	65
3	4.7	111
4	7.8	161
5	11.9	206
6	15	209
7	16.5	189
8	16.5	184
9	14.2	140
10	10.2	110
11	6	51
12	3.3	38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한국 시간 보다는 8시간(하절기 서머타임 실시에는 7시간)이 늦어 한국이 21시일 경우 네덜란드는 동일 13시(하절기는 12시)이다.

서머타임 실시 기간은 매년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후 4시(서머타임 중)/5시(서머타임 이후) 이후에 네덜란드에 전화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

2) 근무 시간

근로자의 법정 최고 근무 시간은 주당 60시간이나 4주 평균 55시간, 16주 평균 48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일일 근무시간도 최장 1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역시 5일간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해서도 안된다.

근무중 휴식과 관련해서는 5.5시간 이상 근무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 휴식시간은 15분씩 2번으로 나눌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노사 간 포괄 협상을 통해 현 재는 주 38-40시간 근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 36시간 근무 업 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 노조의 경우 32시간제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MKB) 등 기업 측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의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EU 내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근무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부터 근무 시간 확대를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분 일반 사무실(은행 및 우체국 포함)의 경우 08:30에서 16:30까지 또는 09:00에서 17:00시까지 근무하며, 주 5일 근무제가 가장 보편적이나 은행의 경우 금요일 오후 격주 휴무제가 노사 간 합의로 1996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의사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당수이다.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의 미팅은 금요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휴일의 증가와 근로 시간 단축으로 금요일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상점은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10:00부터 18:00까지 주말(토요일)에는 17:00까지만 영업한다. 일요일은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의 대도시의 일부 쇼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점한다.

3) 대부분의 상점들 문 여는 시간

- 월: 13~18시(백화점 11~18시)
- 화~금: 9~18시: 하지만 2006년 말부터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평일에도 22시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이 확대되고 있다.
- Amsterdam 인근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Amstelveen의 쇼핑 상가의 경우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등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시청 및 주변 쇼핑 상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은행

- 월: 13~16시
- 화~금: 9~16시
- 토, 일: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 주요 단위(도량형)

네덜란드의 도량형은 한국과 같은 미터법 및 그램을 사용한다.

미터법 단위

길이	mm	cm	m	km
부피	-	cm ³	m ³	-
넓이	mm ²	cm ²	m ²	km ²
무게	mg	g	kg	ton

라. 출입국/비자**1) 비자 관련 일반 사항**

- 3개월 이내의 단기 출장
 - 한국-네덜란드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에 의해 90일 이내의 체류에 대해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 최근 6개월 동안 누적 체류 일수가 90일을 초과해선 안 된다.
- 3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 2007년 6월 1일부로 기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만 했던 임시 체류 비자(Mvv)가 면제됨으로써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에도 일단은 네덜란드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 하지만 근로 허가서(Working Permit)는 여전히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련 기업을 통해 취득을 위한 진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출입국 절차**□ 네덜란드 입국 절차**

-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입국하게 되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공항인 스키폴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다. 스키폴 공항은 유럽 내 주요 도시와 전세계 약 250여 개의 도시로 연결되며 한 터미널에서 도착과 출발이 이루어져 환승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 입국 절차
 - 게이트 → 출입국 신고 → 수화물 수취 → 세관 검사 → 도착
 - 출입국 카운터: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 표시(Arrivals)를 따라 자동 보도를 타고 가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창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권과 사증을 제시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수화물 수취: 출입국 카운터를 통과하면 곧바로 수화물을 수취할 수집하장이 나온다. 모니터 화면에서 비행편 번호를 확인한 후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는다.
 - 세관 신고: 신고할 물건이 없을 경우 녹색 창구로, 신고할 물건이 있을 경우 붉은색 창구로 들어간다.
 - 도착: 세관 검사를 끝나게 되면 밖으로 곧바로 나오게 된다.
- 여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후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 주 네덜란드대사관을 방문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 여행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 사진
 - 여권 분실 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 여권 번호 및 발급 일자, 유효 기간(여권의 관련 면 항상 복사 소지 요망)
- 세관 검사
-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 검사대는 X-Ray 투시기가 있어 수하물은 투시기를 통과시켜 의심이 가는 가방만 열어 본다. 그러나 세관원에 따라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검사는 없으며 예방 접종 또한 필요 없다. 입국 시 신고물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SAMPLE 등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샘플 통관
- 네덜란드의 경우 샘플 및 브로슈어의 경우 랜덤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통관은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샘플 가액이 175유로 이하일 경우 통관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가액이 175유로 미만이라는 증빙(영수증 또는 Invoice)이 필요하며 샘플 가액이 175유로를 초과할 경우 정식으로 통관을 해야 한다. 전시회의 경우 ATA Carnet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환승
- 스키폴 공항에서의 환승은 매우 편리하다. 스키폴 공항은 하나의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어 게이트를 통과해 환승 창구를 이용 탑승하는 여타 공하에 비교 아주 쉽게 환승할 수 있다.
 - 게이트
 - 공하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탑승 시간과 게이트가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게이트로 이동한다.
 - 환승 창구
 - 연결 항공편 탑승권 소지 시: 스키폴 공항에 도착하면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승을 위한 탑승 시간과 게이트 번호가 표시된 환승 정보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 곧장 출발 게이트로 이동해 환승할 수 있다.
 - 연결 항공편 탑승권 미소지 시: 연결 항공편의 탑승권을 미소지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서 안내하는 환승 창구를 통해 새로운 탑승권을 발급받아 환승할 수 있다.

□ 네덜란드 출국 절차

- 출국 수속장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후 “Passport Control” 카운터를 통과하면 바로 면세점들이 보이는 출국 라운지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게이트가 나온다. 게이트는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확인 사인 보드를 따라 쉽게 찾을 수 있다.
- 네덜란드는 19%의 부가세가 적용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한하여 출국 신고 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출국 시 구매한 물품의 상점으로부터 받은 신고서에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출국장 옆에 있는 Tax 신고소 또는 ABN Amro 은행에서 구매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보여주고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마. 환율/환전

1) 환율

- 네덜란드가 2002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 통화는 유로화이며 2009년 9월 15일 기준 유로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 1 EUR = 1,775.85원(2009.9.15)
- 1 EUR = 1.45904 USD(2009.9.15)

2) 환전

- 환전은 은행, 환전소, 호텔 등에서 가능하나 환전 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 은행: 3-4%
- 환전소: 3-6% (공항 내 환전소는 수수료 저렴 2.5-3%)
- 호텔: 6-11%

바. 교통/통신

1) 교 통

시내 대중 교통 수단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Metro)과 경전철(Tram)을 이용할 수 있다.

□ 택시

택시 요금은 한국에 비하면 다소 비싼 편으로 기본 요금은 7.50유로이다. 참고로 공항(Schiphol)에서 KBC가 위치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남부 지역(Strawinskylaan 767)까지 편도 약 3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11km)

(일종의 Call Taxi로, 암스테르담에서 호출 시는 Taxicentrale 0900-677-7777 또는 020-777-7777로 전화)

□ 버스, 지하철, 경전철

연계권으로 공동 사용 하는데, 승차권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혹은 운전자가 직판)를 이용하거나, 3~4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우체국 등 지정 판매소에서 15구간용(EUR 6.90), 혹은 45구간용(EUR 21.60)을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Strippen kaarten라는 이 승차권은 우체국, 담배 판매점, 기타 잡화점, 일부 슈퍼에서 살 수 있다.

네덜란드는 교통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동일 구역 내에서는 버스, 전철, 경전철에서 같은 승차권 이용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사용할 때는 "구역 +1"을 적용하여 즉, 목적지까지가 3구역일 경우 3+1 즉, 4칸에 해당되는 표를 구입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방법은 차량 내 검인 기계(노란색 기계)에 승차권을 넣게 되면 검인 된다.

□ 기차

시외 교통 수단으로는 기차가 가장 저렴할 뿐 아니라 편리하다.

네덜란드 철도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ns.nl을 이용하면 네덜란드 국내선 및 국제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 통 신

□ 시내 전화

유로 동전이나 전화카드 이용 가능하나 시내에 공중전화기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시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로밍해 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 전화

동전이나 카드 이용은 시내 전화와 동일하다. 다만, 먼저 국제 전화 인식 번호를 누른 후 국가 번호, 지역 번호,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하면 된다.

(예: 네덜란드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 00(국제번호)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예: 서울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전화할 때) 001(국제 번호) - 31(네덜란드) - 20(암스테르담) - 전화번호

참고로 호텔 객실 내 국제 전화를 사용할 경우, 상당히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네덜란드 대부분 호텔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가능하다(www.hotelnet.nl, www.bookings.nl)

암스테르담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요 호텔은 다음과 같다.

□ Hotel Okura(☆☆☆☆☆)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 공항 셔틀버스 운행 (50분 간격)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 가격)
 - 싱글 270유로, 트윈 300유로
 - 인터넷 사용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678-7111/ 팩스: 31(0)20-671-2344
 - 웹사이트: www.okura.nl

□ Hilton Amsterdam Hotel(☆☆☆☆)

- 위치: Apollolaan 138, 1077 BG Amsterdam
- 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7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5분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 가격)
 - 싱글 250유로, 트윈 280유로
- 인터넷 사용 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일일 2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710-6000 / 팩스: 31(0)20-710-6080
 - 웹사이트: www.hilton.com (Hilton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Dorint Sofitel Amsterdam Airport Hotel(☆☆☆☆)

- 위치: Stationplein 951 1117 CE, Schiphol
 - 스키폴공항에서 5분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 요금)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 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무료)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회의실 등에는 인터넷 설치 가능(사용료, 설치비 별도 청구)
- 연락처
 - 전화: 31(0)20-540-0777
 - 팩스: 31(0)20-540-0700
 - 웹사이트: www.sofitel.com (Sofitel Hotel 글로벌 통합 홈페이지)

□ Novotel Amsterdam(☆☆☆☆)

- 위치: Europa Boulevard 10,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 가격)
 - 싱글 160유로, 트윈 180유로
 - 여행사를 통한 예약 시 싱글 110유로, 트윈 130유로 (여행사 정보는 암스테르담 KBC 홈페이지 호텔예약 정보 참조)

- 인터넷 사용 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일일 27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541-1123
 - 팩스: 31(0)20-646-2823
 - 웹사이트: www.novotel.com (Novotel Hotel 글로벌 통합홈페이지)

□ Holiday Inn Amsterdam(☆☆☆☆)

- 위치: De Boelelaan 2,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타운까지 8km, Rai 트램역에서 도보로 3분 (Novotel Amsterdam 호텔 맞은편에 위치)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정상 가격)
 - 싱글 180유로, 트윈 200유로
- 인터넷 사용 여건
 - 객실에서 Wireless 인터넷 이용 가능(일일 22유로-카드 구입 불필요: 체크아웃 시 계산서에 포함)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0-646-2300
 - 팩스: 31(0)20-517-2764
 - 웹사이트: www.holidayinn.com (Holiday inn Hotel 글로벌 통합 홈페이지)

□ A4 Schiphol (☆☆☆☆)

- 위치: Rijksweg A4 Nr. 3 Amsterdam
 - 공항에서 차량으로 5분, 다운타운까지 차량으로 20분, 공항 셔틀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 객실 요금(Standard room 기준)
 - 싱글 130유로, 트윈 150유로
- 인터넷 사용 여건
 - Wireless 인터넷 카드로 객실에서 인터넷 이용 가능(일일 30유로)
 - 비즈니스 센터에서 인터넷, 팩스 등 통신 시설 이용 가능
- 연락처
 - 전화: 31(0)25-267-5335
 - 팩스: 31(0)25-262-9245
 - 웹사이트: www.volk.com(Volk 글로벌 통합 홈페이지)

- 호텔의 가격 정보는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성수기/비수기, 예약 시기 및 투숙 일수 등에 따라서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현지 여행사나 인터넷 특별 요금 등을 통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식당

- 네덜란드의 식생활은 개신교의 영향으로 유럽 내에서도 다소 검소한 편이며, 전통적인 음식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유럽 내 중심에 자리잡은 덕에, 암스테르담의 다운타운에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다.

- 한국 식당은 암스테르담 4개가 성업 중이다.

□ Sushi Time

- 위치: Strawinskylaan 13 1077 XX Amsterdam 암스테르담 KBC가 입주해 있는 WTC Amsterdam 건물 내 위치(5번 트램 및 51번 메트로 Amster Zuid/WTC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일식
- 가격대: 20-30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575-3200
- 기타 특이 사항: WTC 건물 내 위치해 찾기 쉽다. 간편한 런치를 즐길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으로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 Casa di David

- 위치: Singel 426 1017 AV Amsterdam(5번 트램 Koningsplein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피자, 파스타 등 이탈리아 음식
- 가격대: 15-20유로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24-5093
- 기타 특이 사항: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탈리아 식당으로 가벼운 점심 등을 해결하기 좋음.

□ De Roode Leeuw

- 위치: Damrak 93-94, 1012 LP Amsterdam 4, 9,16, 24, 25번 트램 다운타운담역에서 하차(5m)
- 주요 메뉴: 현지식(해산물 요리) 및 양식 등
- 가격대: 15-20
- 홈페이지: <http://www.hotelamsterdam.nl/restaurants.htm>
- 연락처: 31(0)20-555-0666
- 기타 특이 사항: 다운타운 중심가인 담광장에서 바로 인접한 식당으로 비즈니스 관광 시 최고의 교통 편의성을 지닌 식당

□ Yamazato

- 위치: Ferdinand Bolstraat 333, 1072 LHSchiphol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다운 타운 까지 7km,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역에서 도보 5분(25번 트램 Cornelis Troostplein 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일식
- 가격대: 50-100유로
- 홈페이지: www.okura.nl
- 연락처: 31(0)20-678-7111
- 기타 특이 사항: 특급 호텔인 오후라 호텔 내 직영 일식 레스토랑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일본인이며 철저한 일식을 표방,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등에 적합한 레스토랑

□ De Jonge Dikkert

- 위치: Amsterdamseweg 104a 1182 HG Amstelveen 암스테르담 외곽 지대에 위치, 다운타운에서 15km, 공항에서 10km(Bus 166번 Molenweg정류장에서 하차)
- 주요 메뉴: 각종 생선(연어)요리, 스테이크요리 등
- 가격대: 20-50유로
- 홈페이지: www.jongedikker.nl
- 연락처: 31(0)20-643-3333
- 기타 특이 사항: 네덜란드 전통 풍차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프렌치풍이 가미된 네덜란드 전통 식당으로 주말 예약 필수

□ Excelsior

- 위치: Nieuwe Doelenstraat 2-8 Amsterdam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뢰로프 호텔 내 위치(4,16,24,25번 트램 Mun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2분 이동)
- 주요 메뉴: 각종 양식 및 생선 요리 등
- 가격대: 40-70유로
- 홈페이지: www.leurope.nl
- 연락처: 31(0)20-531-1777
- 기타 특이 사항: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인 뢰로프(De L'Europe)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약 500여종 3만여 병의 와인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암스텔 강의 야경을 아름답게 감상하며 상담할 수 있는 레스토랑임.

□ Bazar Amsterdam

- 위치: Rembrandtplein 26-36 1017 CV Amsterdam 다운타운 내 위치(4,9번 트램 Rembrandtplein역에서 하차 도보로 1분 이동)
- 주요 메뉴: 각종
- 가격대: 20-40유로
- 홈페이지: www.brasserieschiller.nl
- 연락처: 31(0)20-554-0723
- 기타 특이 사항: 프랑스풍의 레스토랑으로 와인을 곁들인 비즈니스 접대에 좋은 장소

□ 미가(Mika)

- 위치: Buitenveldertselaan 158A, 1081 AB, Amsterdam
- (5번 트램, 51번 매토로 van Boshuzenstraat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한식
- 가격대: 16-18(찌개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31(0)20-661-4077

□ 화원(Hwawon) / 칸(Khan) / 한국관(Korean Restaurant)

- 위치: Nederhoven 13/15, 1083 AM Amsterdam(5번 트램, 51번 매토로 vanBoshuzenstraat 역에서 하차 도보로 5분 이동. 화원, 칸, 한국관 3개 식당이 동일 블록 내 위치)
- 주요 메뉴: 한식
- 가격대: 16-20유로(찌개류 기준)
- 홈페이지: N/A
- 연락처:
 - 화원: 31(0)20-642-3142
 - 칸: 31(0)20-646-3722
 - 한국관: 31(0)20-644-5273

□ Restaurant D'Vijff Vlieghen

- 위치: Spuistraat 294-302 1012 VX Amsterdam(1,2,5번 트램 Spui-Nieuwezijds Voorburgwal역에서 하차)
- 주요 메뉴: 각종 네덜란드식 생선 및 야채 요리
- 가격대: 30-50유로
- 홈페이지: www.thefiveflies.com
- 연락처: 31(0)20-530-4060
- 기타 특이 사항: 렘브란트 유화 4점이 걸려있는, 전통 네덜란드 요리를 접할 수 있는 식당. 주말에는 예약 필수

아. 관공서 관행

네덜란드 관공서는 효율성이 여타 EU국가와 비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 관공서의 경우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Letter로 통보한다. 하지만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호 협조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이때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서류는 화란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네덜란드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일을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영어가 유창하다.

자. 공휴일

1) 개 요

- 네덜란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New Year's Day (신정): 매년 1월 1일
- Queen's Birthday (여왕 탄신일): 매년 4월 30일
- Good Friday - Easter Monday (부활절 연휴)
- Whit Monday(성령 강림일)
- Ascension Day (예수 승천일)
- Christmas-Second Christmas Day(크리스마스): 매년 12월 25-26일

2) 2009년 공휴일 내역

공휴일	일자	참고 사항
New Year's Day (신정)	1월 1일	
Easter (부활절)	4월 13일	전후 1주일간 휴업업체 다수
Queen's Birthday(여왕 생일)	4월 30일	
Ascension Day(예수 승천일)	5월 21일	
Whit Monday(성령 강림일)	6월 1일	
Christmas (성탄절)	12월 25~26일	공식휴일은 25-26일 이틀간이나 실제로는 24일 부터 신년 첫 주까지 휴가를 갖는 기업들이 많음

자료: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3) 휴가 기간

네덜란드인은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기간이 긴 편이다.

법정 공식 휴가 일수가 최저 20일(Working Day 기준)로 거의 한달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방문 전에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휴가가 7~8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에 방문 약속이 잡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 중 현지 방문 상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네덜란드 여행 시 주의할 점은 기타 해외 지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으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 내 다운타운을 관광할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들 소매치기는 주로 중동, 아프리카 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단체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동양인들을 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길을 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역, 박물관,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소매치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옷에 이물질을 묻힌 후 죄송하다고 한 후, 인근 화장실로 유인해 금품을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능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사복 경찰을 사칭하는 2인조 강도가 마약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및 지갑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찰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의가 가끔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위조 화폐 검사를 한다고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행 경비는 가급적 여행자 수표로 준비하고 현금을 소지할 경우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비행 티켓이나 여권은 숙소에 보관하고 사진기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도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현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관광 정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안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VVV)에 문의하거나, 현지인들의 영어 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이용하면 편리 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비상 연락처

네덜란드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은 아래와 같다. (국가 번호 생략)

- 네덜란드 주재 한국대사관: 070-358-6076
- 암스테르담 KBC: 020 673-0555
- 외환은행 암스테르담 지점: 020-546-9331
- 경찰: 112 (범죄신고 및 응급차 요청 시)
- 화재 시: 112
- 앰불런스 요청: 112
- 긴급 의사 문의: 3455300
- 야간 약국: 일간지 또는 각 약국문에 안내문(약국- APOTHEEK, 병원 - ZIEKENHUIS)
- 물건 분실 센터: 3619669

2) 여행 필요 연락처

- 전화번호 문의: 0900 8008 (국내), 0900 8418 (국제)
- 네덜란드 철도청: 0900 9296
- 대중교통 안내: 0900 9292
- 교통상황 안내: 0900 9622 (국내)
- 스키폴 국제공항: 0900 0141
- ANWB 여행 안내: 0900 910 910 1
- 한국인 운영여행사
 - NTS(Nederland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3-562-4056

- E-mail : nederlandtour@planet.nl
- Euhan Creative Tour Service
- 전화번호: 020-640-7022
- E-mail : euhan-loc@xs4all.nl
- Daehan Travel
- 전화번호: 020-697-4720
- E-mail : scson@chello.nl

타. 기타 유용한 정보(비즈니스 쇼핑)

네덜란드는 소박한 국민 기질 탓으로 제품에 있어 대부분 실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이아몬드 및 델프트 도자기 등 네덜란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가 제품도 눈에 띈다.

추천할 만한 상품은 델프트 도자기, 백납 제품(Pewter), 제품수공업품, 가족제품, 베흐 시장에서의 각종 골동품, 세계적 유명 아동복 브랜드인 Oillily, 청바지 브랜드 G-STAR, 유아용품 브랜드인 PRENATAL 등이다.

- Bijen Korf
 - 암스테르담 다운타운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백화점이다.
- Magna Plazq
 - Bijen Korf와 같은 블록 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옛 우체국 건물을 활용,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 관광객들이 종종 방문한다.
- P.C. Hooftstraat (명품거리)
 - 반고흐 박물관 뒤쪽으로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명품 거리로 매년 8월 및 1월 초 세 일 기간으로 접어든다.
- Nieuwmarkt 베흐 시장
 - 5월부터 9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다운타운과 인접한 Nieuwmarkt 광장에서 앤티크 베흐 시장이 열린다.
- Roermond fashion outlet
 - 암스테르담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로어몬드시에 위치한 아울렛으로 각종 유명브랜드 제품을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http://www.designeroutletroermond.com>
 -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할인 가격에서 추가 할인을 실시하므로 알뜰 쇼핑도 가능하다.

파. 관광 명소

1) 암스테르담

□ Rijksmuseum(네덜란드 국립박물관)

- 15~19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품, 선사 시대 이후 네덜란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 렘브란트의 "Night Watch"(야경꾼)이 전시된 네덜란드 최대의 국립 박물관
- 홈페이지: www.rijksmuseum.nl

□ Van Gogh Museum(반 고흐 박물관)

- 유화작품 200여 점, 데생 500여 점 및 편지 7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 고흐 소장품 미술관으로 반 고흐 작품 이외에 기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
- 개장 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18:00(매표소 17:30까지)
- 안내 전화: +31 (0)20 570 5252
- 홈페이지: www.vangoghmuseum.nl

□ Anne Frank House(안네 프랑크의 집)

-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유대인소녀 안네 프랑크 일가가 독일 나치군의 만행을 피해 은둔했던 장소
- 개장 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4월 1일~9월 1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 9시, 1월 1일과 12월 25일은 오후 12시~5시
- 홈페이지: www.annefrankhuis.nl

□ Damrak(담광장)

- 암스테르담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광장 주위에 구왕궁 및 2차 대전 위령비가 소재해 있음. 이곳에서부터 Kalverstraat까지 이어지는 쇼핑거리가 유명하며 Magma Plaza 등 유명 백화점들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기타

- 운하 관광: 관광 유람선을 이용, 암스테르담의 주요 운하를 따라 운행. 약 1시간여 소요.
- 다이아몬드 커팅 센터: Coster Diamond 및 Gassan 등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다이아몬드 커팅 시범을 보인다. 한국인 직원의 안내로 구매도 가능하다(반 고흐 박물관 맞은편에 위치)

2) 헤이그

□ Madurodam(마두로담)

- 암스테르담의 옛 건물, 알크마르의 치즈 시장 및 델타프로젝트 등 네덜란드의 명소들을 1:25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 공원
- 개장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www.madurodam.nl

□ Binnenhof(비넨호프)

- 13세기 고딕 양식의 궁으로 영주의 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 Peace Palace(평화궁)

- 국제 사법 재판소 건물
- 홈페이지: www.peacepalace.nl/

□ Yi Jun Peace Museum(이준 열사 기념관)

-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2회 만국 평화회의의 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순국하신 이준 열사 박물관으로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헌화용 꽃 준비 필수

□ Scheveningen(스헤브닝혼 해변)

- 네덜란드 최대의 해변으로 연중 내내 해외 및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주변에 각종 위락 시설 및 식당가가 즐비해 있음.

3) 기타 지역

□ 로테르담항

- 세계 최대 화물 처리 항구로서 Europort라고도 불린다. Speedo(쾌속 유람선)를 이용 관광 가능

□ Afsluitdijk(북해댐)

- 북해를 가로질러 Noor-Holland(북홀랜드 주)와 Friesland(프리슬란드 주)를 잇는 총 33km의 거대한 제방

□ Zaanseschanse(풍차 마을)

-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되어 있던 각종 옛 풍차들(종이 및 기름제조 등)을 옮겨 재조립해 관광지로 조성한 민속촌으로서 현재도 주민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생활하고 있음. 민속촌 내에 나막신과 치즈 제조 공장 및 상점이 있음.
- 홈페이지: <http://www.zaanseschans.nl>

□ Keukenhof(케uken호프)

- 세계 최대의 튜립 공원으로 매년 튜립이 피는 3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개장
- 개장 시간: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 전화: +31 (0)252 465 555, 홈페이지: www.keukenhof.nl

□ Aalsmeer Flower Auction(알스미어 화훼 경매장)

- 세계 최대의 화훼 경매장으로 일반인들도 경매 관람이 가능
- 홈페이지: <http://www.vba-aalsmeer.nl/english/>

□ Volendam(볼렌담)과 Marken(마르켄섬)

-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어촌 민속 마을로 목조형 가옥이 아름다움.

□ Delta Expo

- 네덜란드 남부 Zeeland(제이란드 주)에 위치한 개발과 환경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조제로 유명

□ Delft(델프트)

- 네덜란드의 특산물 중 하나인 Dekftblauw(청색 도자기)의 고향으로 TU Delft(델프트 공대)가 소재한 곳

□ 알크마르 옆의 작은 마을 Schoorl

- 치즈 시장이 열리는 알크마르 부근의 Schoorl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고 조용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마을 자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숙박 및 관광 시설, 거리의 카페 및 교회 등도 모두 아기자기해서 네덜란드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다.
- Schoorl 관광 안내소(VVV Schoorl – Groet – Camperduin)
- Tel: 072 – 5091504 <http://www.schoorl.info/>

□ 국립공원 De Hoge Veluwe

- 5,000헥타르에 달하는 네덜란드 최대의 자연보호 국립 공원으로 600여 마리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음.
- 입장료는 공원 입장만 아동 6~12세까지 2,50유로, 어른 5유로, 공원과 미술관 입장 포함은 아동 5유로, 어른 10유로임.
- 개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폐장은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 4월과 9월은 오후 8시, 5월과 8월은 9시, 6~7월은 10시, 10월은 7시, 11월부터 3월까지의 9시 개장, 오후 5시 30분 폐장
- Het Nationale Park De Hoge Veluwe는 Arnhem, Ede 그리고 Apeldoorn 사이에 위치, 공원입구는 Hoenderloo, Otterlo, Schaarsbergen에 있음.
- 전화: 0900 46 43 835 <http://veluwe.businessmedia.nl>

□ Texel

- 길게 펼쳐진 모래 사장이 인상적임.
- 네덜란드 북서쪽 위치한 Den Helder에서 매시간 운행하는 페리 이용
- 전화: 0222-369691/369692 www.teso.nl
- Texel 관광 안내소(Emmalaan 66, Den Burg)
- 전화: 0222 314741, www.texel.net

□ Kinderdijk(전통 풍차 마을)

- 199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관광지로 네덜란드 내에서 유일하게 10개 이상의 전통 풍차가 보존됨. (총 24개의 풍차)
- 로테르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함.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네덜란드의 주요 전시회 일정('09.5월 기준)

전시회명	국가	도시	개최기간
암스테르담 의료 박람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06/07~2009/06/11
암스테르담 국제 자동차 재생 부품 전시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06/07~2009/06/09
암스테르담 부동산 전시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06/16~2009/06/18
유티레히트 시계 보석전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2009/06/28~2009/06/29
암스테르담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09/11~2009/09/15
유티레히트 미용박람회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2009/09/12~2009/09/14
로테르담 농축산물 박람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09/09/21~2009/09/23
로테르담 식품가공 전시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09/09/21~2009/09/23
유티레히트 전기 공학 전시회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2009/09/28~2009/10/02
암스테르담 원예 박람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10/14~2009/10/17
유티레히트 가족박람회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2009/10/29~2009/11/01
암스테르담 유럽 육상운송 박람회 200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10/30~2009/11/07
로테르담 해운 박람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09/11/03~2009/11/06
로테르담 해운 박람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09/11/03~2009/11/06
로테르담 해운 박람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09/11/03~2009/11/06
마스트리히트 스테인레스 스틸 박람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2009/11/10~2009/11/12
유티레히트 물류 박람회	네덜란드	유티레히트	2009/11/10~2009/11/14
암스테르담 해양장비 박람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11/17~2009/11/19
메츠쇼 200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09/11/17~2009/11/19
로테르담 인테리어 박람회	네덜란드	로테르담	2010/01/27~2010/01/29

자료: KBC 조사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네덜란드의 정부 및 기관들의 웹사이트는 대부분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으며 일부에 한해 영문 홈페이지를 병행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 무역동향 관련 정보 사이트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네덜란드중앙통계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네덜란드대외무역청(The Netherlands Foreign Trade Agency: EVD)
 네덜란드 경제정책기획국(Ned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암스텔담증권거래소(Euronext Amsterdam)
 네덜란드중앙은행(The Nederlandsche Bank)
 네덜란드 국책 연구기관/EIM Knowledge web (www.eim.net)

나. 네덜란드 정부

Index of Dutch government sites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Justice

다. 정부 및 유관기관 정보사이트

홈페이지 이름	주소	비고
Actal	http://www.actal.nl	비즈 고충처리
Algemene Energieraad	http://www.energieraad.nl	에너지 위원회
Commissie Benchmarking Energie	http://www.benchmarking-energie.nl	에너지 효율성 벤치마킹 위원회
Dreamstart	http://www.dreamstart.nl	기술분야 창업 정보제공
Informatielijn internationaal ondernemen	http://www.internationaalondernemen.nl	국제 교역(수출, 수입, 투자) 정보제공
Leren ondernemen	http://www.lerenondernemen.nl	대학생등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Nederland gaat digitaal	http://www.nederlandgaatdigitaal.nl	네덜란드 디지털정보화 사이트
OESO richtlijnen OESO	http://www.oesorichtlijnen.nl	다국적 비즈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이트
Subsidieshop	http://www.subsidieshop.nl	정부보조금 사이트
Sta ik sterk	http://www.staiksterk.nl	소비자보호 사이트
Surf op Safe	http://www.surfopsafe.nl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사이트
Waarschuwingsdienst	http://www.waarschuwingsdienst.nl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해 피해를 보기 쉬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자료: KBC 조사